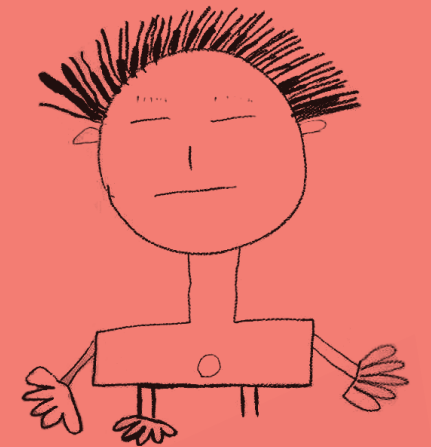




하나의 손상(impairment)은 어떻게 장애(disability)가 되는가? 서로 다른 문화들 내에서 다양한 손상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애의 주관적 경험이란 어떤 것인가? 타인들은 장애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규정하고, 반응하는가? 장애는 개인 내에 있는 것인가, 환경 내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둘 간의 상호작용 내에 있는 것인가?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그린비, 2017

엮은이 콜린 반스, 마이클 올리버, 렌 바턴 / 옮긴이 김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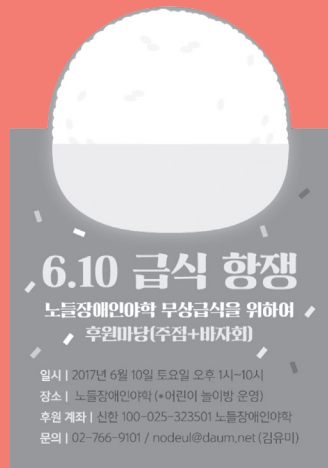


노들바람  
잡지



\* 표지그림

노들장애인아학  
금영빈 학생의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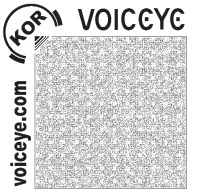
**6.10 금식 항쟁**  
노들장애인아학 무상급식을 위하여  
후원바탕(주점+비자환)

일시 | 2017년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10시  
장소 | 노들장애인아학 (+어린이 놀이방 운영)  
후원 계좌 | 신한 100-025-323501 노들장애인아학  
문의 | 02-766-9101 / nodeul@daum.net (김유미)



노들장애인아학은  
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투쟁하는  
학교입니다.

노들장애인아학 무상급식을 위하여  
6월 10일 노들에서 만나요.



# 노들바람

이야기구성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03 박근혜는 구속되었지만  
06 지난 겨울 진짜 멧졌던 우리, 촛불들  
10 **[형님 한 말씀]** 봄이 오고 있습니다  
12 **[고병권의 비마이너]** 장애인, 슈퍼맨, 위버맨쉬  
16 혁명의 시작! 2017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20 **[장판 핫이슈]** 한국사회가 만든 복지 참사, 희망원  
24 R전동 2017년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  
27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 당장  
31 너를 보고 싶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34 <문지마 흥신소-광화문 불나방> 제작기

---

36 인간 존재 선언, 2017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41 <나, 추경진> 아이들에게 부양의무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42 <나, 조은별> 첫 월급을 받자, 가족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43 <나, 요자>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습니다

---

45 **[노들아 안녕]** 이형숙  
46 **[노들아 안녕]** 김상희  
47 **[노들아 안녕]** 정소영  
48 노란들판~ 인스타그램  
54 들판을 헤매다 차 한 잔 마시자고  
58 2017 안전벨트 학생회장 김이준수  
59 **[교단일기]** 하마무가 하마무에게 인터뷰를 한다  
61 나에게 노들은 편안함이다  
63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꿈도 꾸지 못했을 지금, 자유  
64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노동에 관하여, 풀리지 않는 질문  
67 **[대학로야 같이 놀자]** 세상의 중심은 나와 너라는 것

---

68 15회 정태수상 수상자 김명학 동지!  
70 ▶ 별이 된 현이에게...  
73 ▶ 나에게서 당신이 빠져되었습니다  
77 ▶ 내 친구 피터  
80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던 카레 4160그릇  
83 함께 소리쳐요! 우장창창!!  
85 장애인 독립진료소 5 + “3주년”을 맞아  
87 민들레 10년을 말하다  
94 **[노들 책꽂이]** 장애학, 장애를 다시 정의하는 혁명을 시작하자  
98 ‘노들장애학강리소’는요?  
99 **[노들은 사랑을 싣고]** 안소진에 대한 탐문 조사  
103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 110호 2017-04**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아학·노들장애인지립생활센터·장애인자립공간 「노들들판」  
장애인문화예술 「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상희 김진수 정소영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2층 (우 03086)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 노들바람 이 야 기 구 성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를 말합니다.

## 제 110호 2017-04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일자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장애일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상희 김진수 정소영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2층 (우 03086)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518-1571)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03 박근혜는 구속되었지만

06 지난 겨울 진짜 멋졌던 우리, 촛불들

10 **[형님 한 말씀]** 봄이 오고 있습니다

12 **[고병권의 비마이너]** 장애인, 슈퍼맨, 워버멘쉬

16 혁명의 시작! 2017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20 **[장판 핫이슈]** 한국사회가 만든 복지 참사, 희망원

24 R전동 2017년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

27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 당장

31 너를 보고 싶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34 <문지마 흥신소·광화문 불나방> 제작기

36 인간 존재 선언, 2017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41 <나, 추경진> 아이들에게 부양의무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42 <나, 조은별> 첫 월급을 받자, 가족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43 <나, 요지>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습니다

45 **[노들아 안녕]** 이형숙

46 **[노들아 안녕]** 김상희

47 **[노들아 안녕]** 정소영

48 노란들판~ 인스타그램

54 들판을 헤매다 차 한 잔 마시자고

58 2017 안전벨트 학생회장 김이준수

59 **[교단일기]** 하마무가 하마무에게 인터뷰를 한다

61 나에게 노들은 편안함이다

63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꿈도 꾸지 못했을 지금, 자유

64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노동에 관하여, 풀리지 않는 질문

67 **[대학로야 같이 놀자]** 세상의 중심은 나와 너라는 것

68 15회 정태수상 수상자 김명학 동지!

70 **▶** 별이 된 현이에게...

73 **▶** 나에게서 당신이 빠져있습니다

77 **▶** 내 친구 피터

80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던 카레 4160그릇

83 함께 소리쳐요! 우장창장!!

85 장애인 독립진료소 5 + “3주년”을 맞아

87 민들레 10년을 말하다

94 **[노들 책꽂이]** 장애학, 장애를 다시 정의하는 혁명을 시작하자

98 ‘노들장애학궁리소’는요?

99 **[노들은 사랑을 싣고]** 안소진에 대한 탐문 조사

103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을  
여는 창

01

제주도 꽃자왈에서 본 나무와 돌들이 종종 떠오릅니다. 구멍이 송송송 뚫린 돌 사이로 뿌리를 내린 나무, 옆 나무의 몸통에 자기 가지를 돌돌 말아 올라가는 나무, 완전히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뿌리 내릴 곳을 찾는 나무, 그렇게 다양한 의지들이 마구 형클어 널린 덩굴 같은 숲.

02

몇 달 만에 다시 점심 급식을 먹고 낙산에 올랐습니다. 낙산공원을 산책할 때면, 매일같이 사진 찍어두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간 그날도 그 자리에서 찰칵, 휴대폰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음...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찻잔만 마음은 풀고 낙산을 내려오다 번득 떠오른 것은 가족나무였습니다. 낙산공원 꼭대기에 까치집 두 동을 품을 정도로 여유롭게 서 있던 가족나무가 베어지고 없었습니다.

03

들다방에는 작은 전자저울이 있습니다. 세상에 컵은 다양하고, 바리스타들은 컵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한 커피의 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유용한 것은 '0set' 버튼. 전자저울 위에 컵을 얹고, '0 set'을 누르면 컵 모양과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0g으로 표시됩니다. 컵 자신이 가진 고유한 무게는 사라집니다. 들다방의 아메리카노는 뜨거운 물 180g에 에스프레소 한 샷이 들어갑니다.

04

노들에서도 만난 적 있는 가수 요조의 노래 중,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라임에 맞추어, 글은 어떻게 쓰는 거였더라,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요 몇 달간 혼자 불러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써보지 않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말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어쩔 이렇게 낯설 수 있는지. 다시 노들바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유미입니다. '노들바람을 여는 창'이라는 제목의 이 글과 낯선 사람들 앞에서 짧게 해야 하는 자기소개가 너무 어려워진 탓에 노래를 자꾸 부르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점점 기억력은 나빠지고 살아갈 날들은 닳쳐옵니다.

박근혜는  
구속되었지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아직 변한 게 없다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고장인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로 출세하여 활동하고 있음. 일을 즐거움으로 알고 놀듯이 일하며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었음.



2016년 10월 초에만 해도 박근혜가 계속 대통령일 줄 알았다. 우리 같은 민초들이야 최순실이 대한민국을 비신 실세라는 것을 눈치라도 챌리가 만무했을 때다. 그때 우리는 2017년 정부 예산이 국회에 심의되는 시점에 청와대 바로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에 올라가서 대형 현수막을 내리고 1주일 가까이 농성을 진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보장하라!”

청와대 앞 농성을 철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 숨어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촛불이 광화문 광장에 타올랐다. 그 당시 1,500일 넘게 광화문 지하에서 외롭게 지켜온 우리의 농성장은 매주



토요일이면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었다. 우리는 절절한 마음으로 광화문광장을 찾아오는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을 외쳤고, 또한 시민들에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쳤다.

2016년 12월 3일, 그날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 마지막 토요일이었다. 광화문광장에는 촛불시민들이 최대로 운집하였고, 마침 '세계장애인의 날'이었기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결사적으로 발언을 요청하여 소중한 3

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었다. 3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박에 떨리는 마음도 있어서 발언을 글로 작성하여 수없이 연습하고 올라갔다.

1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중하는 무대에서 발언을 하려니 머리가 하얗게 물들고, 가슴은 바람처럼 흔들렸지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의 간곡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숨을 몰아쉬며 발언을 하였다.



오늘은 스물네 번째로 맞는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역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한 지 1,565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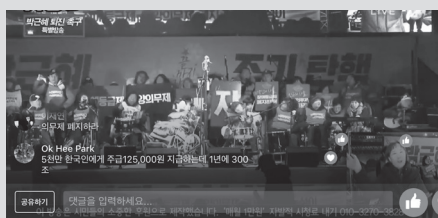
11월 20일, 전주에서 한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11월 23일, 경기도 여주에서 또다시 한 어머니가 장애인 아들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모와 가족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선택한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모가 살인자입니까.

박근혜 복지의 총체적 문란의 결과입니다.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중증장애인은 이 사회에서도 대체 어떤 존재인가.

「공간이동」이라는 장애인의 삶을 담은 랩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습 지옥 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내 모습, 큰 모순, 자유, 평등, 지키지도 않는 약속”

장애인들은 이동도 제대로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일자리도 없는 지옥 같은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순 팽이였습니다. “흥! 닥치라고 그래, 언제나 우린 소외받아왔고, 방구석에 '폐기물'로 살아있고. 그만 식으로 쳐다보는 차별의 시선, 위선 속에 동정받는 병신인 줄 아니! 닥쳐 닥쳐라, 우린 병신이 아니!”

장애인들은 방구석과 시설에서 쓸모없는 폐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장애인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고 쓰다가 쓰레기처럼 버리는 자본과 권력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것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전에도, 그리고 죽음 후에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복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재벌과 새누리당과 함께 그 패거리들의 탐욕만을 채웠습니다. 박근혜는 총체적인 국정문란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새누리당과 재벌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며,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투쟁해서 승리합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고, 구속이 되었다.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지하도에서의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 지난 겨울 진짜 멋졌던 우리, 촛불들

비록 0점이 생겼지만,  
‘값진 승리’다

김필순

자꾸 쪼그라진다는 말을 듣지만  
얼굴과 몸은 쪼그라져도 마음만은 쪼그라지지 말자!



오늘 아침에도 연고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이놈의 0점은 사라지는 듯하다 다시 나타납니다. 연고를 바를 때마다 ‘에잇-’ 하고 중얼거립니다. 내 생애 첫 0점을 가져다준 박근혜에게 저는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사람이 일이나 행동이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 있다’라는 뜻이 ‘유감스럽다’라고 하니 그렇다면 저는 박근혜에게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것인가 봅니다. 어쩌면 영원히 저와 함께 살지 모르는 0점을 볼 때마다 박근혜가 생각나겠지만 촛불승리한 우리, 0점을 볼 때마다 승리한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



오랫동안 나갔고 오랫동안 추웠던 작년 겨울을 광화문에서 견뎌내기 위해 두 겹씩 겹쳐 신은 양말이 무좀의 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기억하시죠?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나갔던 날, 그 래도 안 되겠다 싶어 가는 길에 내복을 사 입던 날, 펥펥 내리는 눈 길에서 엉덩방아를 찧던 날... 수많은 날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 같아 억울한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잊지 못할, 다음 생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를 값진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2017년 4월이니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광화문 국민촛불은 반년을 되돌려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비슷비슷한 날들이었지요. 이번 주는 나가야지? 이번 주는 쉬자? 아니야 오늘은 비가 와서 사람들이 적을 거야, 가야지? 아니야, 오늘은 눈이 와서 사람들이 적을 거야, 가야지? 아니야, 오늘은 너무너무 추워 사람들이 안 나올 거야, 가야지? 광화문에 나가도 못 나가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반년이었습니다. 그런 반년을 보내고 탄핵인용이 발표된 날 수고했다, 고생했다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 토요일 함께 보낸 동지들과 서로를 안아주며 툭툭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못내 아쉽지만 그럴 날이 또 있겠지요.

매주 국민촛불(국민이라는 한정된 뜻을 확장해 이후에는 범국민행동으로 이름 변경)이 열리는 광화문에 나갔지만 우리는 광장보다 해치마당과 농성장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외무제 폐지 선전전을 하고, 모금을 하고, ‘박근혜퇴진역’ 스티커를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해치마당에서 광장의 소리를 듣습니다. 김제동의 강연도 듣고, 김C의 노래도 듣고, 답답하면 광장에 올라가 광장을 한 바퀴 돌고 오기도 하고... 우리의 진지를 알리





기 위한 활동들로 광장의 많은 일들을 보고 즐기지는 못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문화제가 시작되는 저녁시간이 되면 이른 오후부터 시작한 선전전으로 지쳤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동지들은 광장이 사람들로 옴짝달싹 못하기 전에 자리를 떠나야했습니다.

그래도 해치마당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근혜퇴진역’ 스티커를 나눠줄 때 신이 났습니다. 촛불 광장으로 들어서는 길목, 광화문역은 이제 “박근혜 퇴진역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아! 우리 진짜 멋지다’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잘 안보는 편인데 포털사이트 Daum(다음) 메인 화면에 한참 걸렸던 ‘박근혜퇴진역’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 박근혜 퇴진시키고 역사명을 박근혜퇴진역으로 바꿉시다, 기발한 이름입니다... 하나씩 읽어가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너무 좋아서 5호선 광화문역의 모든 출구에 퇴진역 스티커를 다닥다닥 붙이고, 출근길 지하철 역사에도 붙이고, 광화문에는 스티커 리뉴얼 작업도 했습니다. ^^

청와대로 향하는 효자동 행진코스를 길은커녕 발 디딜 틈도 없던 그 코스를 수십 대의 전동휠체어와 현수막, 피켓을 실은 대형마트 카트를 끌며 행진했던 날이 첫 100만 명이 모인 날이었지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촛불집회 랩하는 장애인 할아버지의 감동 자유발언’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교장쌤의 본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무대 발언이 있었던 날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세계장애인의 날 맞이 1박2일 농성투쟁으로 해치마당 경사로에 헌법 제11조 1항 <누구든지 ...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대형현수막을 내건 날이기도 합니다. 그 컸던 현수막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현실에서 지켜지기 위해 우리가 광화문역 지하철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제가 세월호 3주기 4월 16일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번호가 0416이라 다시 한 번 쳐다보는 숫자가 되어버린 세월호의 진실을 위해서 우리,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민중총궐기와 메이데이에도 우리,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화문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제께(4월14일) 광화문사거리 고층빌딩 광고탑에 투쟁사업장 노동자 6명이 무기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광화문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기한농성을 시작한 2012년 8월 21일 광화문과 박근혜를 탄핵한 2017년 3월 10일 이후 광화문은 다릅니다. 정말 폐지할 수 있을까 막막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후 보들이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투쟁과 우리가 광화문에서 컸던 촛불의 힘으로 만든 약속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가 폐지되는 날 우리 광화문농성장을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혁명의 3대 적폐인 수용시설 폐지와 탈시설-자립생활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광화문농성장을 이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올 그날이 오면 박근혜 탄핵인용이 결정된 그 순간 하지 못한 서로를 세차게 끌어안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형님 한 말씀】

「봄이 오고 있습니다.」

노을 야락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은 이렇게 조용히 왔다가 봄이 왔구나 싶으면 봄은 어느 틈에 저 만치 가는 봄입니다. 봄은 그만큼 빨리 왔다가 빨리 갑니다. 막상 봄은 우리 곁으로 찾아 왔지만 우리네 삶은 바깥 힘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되고 구속이 됐었습니다. 아젠 죄인으로써 그 죄값을 치루고 그에 맞는 벌을 받고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겁니다. 그것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꼭 해야만 하고 이것이 국민의 마지막 평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선이 오면 구원로 중해져 대선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우리 국민들이 부디 대통령을 잘보고 뽑아야 할 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을 잘 선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 또한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한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영안실 병동고에 계시다가 비로소 장례를 치른 유성기업의 고 한광호 동지께서 이전 무거운 짐을 벗어 놓으시고, 영원한 안식처로 가셨습니다. 부당한 해고와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고 한광호 동지께서 부당한 해고와 노조 탄압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 고 한광호 동지가 못 이룬 뜻을 하나 하나 살아 남아 있는 우리들이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 동안 맘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월호 속에 있던 세월호가 인양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깊은 어둠과 차가운 바다를 건너다. 그렇게 빠르게 인양이 될 걸.. 막 화가 납니다. 몇 달 만에 인양이 되었는데, 그렇게 3년이란 긴 시간을 끌어오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깊은 슬픔 속에 특히 미수습자 분들의 가족분들은 잿어지는 울분

과 견디기 힘든 통탄의 세월 속에 매정하게 버린 채 그런 지옥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국가는 외면을 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과 동시에 3년 동안 바다 속에서 있던 세월호가 인양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들을 너무나 확을 하게 합니다. 아주 많이 화를 하게 합니다. 정말로 어이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화는 많이 나지만 3년이란 세월이 흘러 갔지만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다행입니다. 세월호는 인양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한 인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홉분들의 미수습자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으로 온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모든 의혹들이 진실들이 밝혀 져야 될 것이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로 소중하고 귀한 생명들을 잃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사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물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들이 이전 편안히 저 갈 길을 가셔서 편히 쉬실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께서도 슬픔과 우울함 그런 짐들을 내려 놓으시고 그동안 추파 차기한 각자들의 생활들을 추스려 생업에 임하시길 권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3년이란 세월을 조금이나마 헛 되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봄을 각자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같은 안전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안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겁니다.

【고병권의 비마이너】

# 장애인, 슈퍼맨, 위버멘쉬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력저런 책을 써왔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몇 년간의 방랑(?)을 마치고,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려고 한다.

최근 몇몇 사람들과 인공지능, 로봇, 생체공학 등에 관한 글을 읽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접한 논문이나 영상들은 내가 상상해온 것 이상이었다. 인공지능 기술은 과연 그것이 '지능'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질병 진단이나 자율주행, 외국어 번역 등 이미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로봇공학도 그렇다. 한때 어기적어기적 견던 로봇들은 뛰다 못해 펄펄 나는 수준이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한다. 생체공학 기술은 생체의 신경과 의족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서 감각과 운동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간에 가깝거나 인간과 접속 가능한 형태의 인공피조물들이 출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 피조물을 삽입하고 기계와 접속하는 인간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런 첨단 기술들을 소개하는 글과 영상에 곧잘 등장한다. 연구자들은 자기 기술의 효용을 설명하면서 장애인을 끌어들이는 연구비를 댈 쪽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구자들이 기술 시연 과정에서 무대에 올리는 것은 모두 감동적인 기적들이다. 사고로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다시 걷고, 시력을 잃은 장애인이 눈을 뜨는 기적들. 생체공학자들은 예수가 행했다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

지난번에 접한 미구엘 니코렐리스(Miguel Nicolelis)의 '원숭이의 원격 현존' 실험과 휴 허(Hugh Herr)의 '생체공학 의족' 연구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니코렐리스는 원숭이 뇌에 전극을 이식하고 원숭이가 특정 동작을 행할 때 뉴런들이 보이는 패턴을 연구했다. '뇌폭풍'이라고 부르는, 뇌 속 뉴런의 패턴을 분석한 그는 그 패턴

을 이용해서 원숭이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고, 원숭이가 원하는 동작을 로봇에 구현할 수도 있었다. 더 나아가 멀리 떨어진 로봇팔을 자기 신체의 연장으로 인식하도록 원숭이를 훈련시킨 뒤,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이게 하는 데 성공했다. 원숭이가 로봇팔을 어떻게 뻗을지 생각하면 뇌폭풍 패턴이 전송되어 멀리 떨어진 로봇팔이 원숭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니코렐리스에 따르면 이 기술은 척추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어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 뇌의 신경 신호를 손상된 부위, 이를테면 손상된 척추를 우회해서 사지에 전달하면 사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이로써 연구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어느 연구자의 표현을 빌면 "많은 고통 받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연구를 밀어붙일 충분한 이유가 된다.

휴 허는 그 자신이 지체장애인인 연구자다. 그는 산악 등반 중 사고를 당해 동상 입은 두 다리를 절단했다. 이후 생체공학 연구에 매진했다. 장애 극복의 길을 거기서 찾은 것이다. 그는 최근 테러로 다리를 잃은 무용수에게 첨단 특수 의족을 선사해서 다시 춤을 출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는 '생체공학 기술이 우리를 뛰고 기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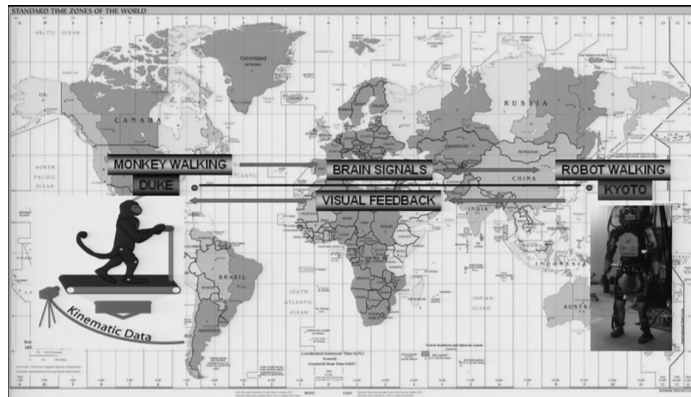
르고 춤추게 한다'는 제목의 테드(TED)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체공학기술은 저의 장애를 없애주었고 제게 새로운 산악 등반 기술을 맛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생체공학 기술을 발전시켜 장애를 없앨 수 있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는 시각장애인이 신경 이식을 통해 볼 수 있고, 마비 환자가 생체공학 기술을 통해 걸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장애에 대한 허의 시각은 사회적 장애모델, 즉 장애는 개인 신체의 손상이나 결손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의 산물이라는 시각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손상은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서 장애화된다. 이를테면 이동권이 잘 보장된 사회에서는 다리의 손상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수화가 하나의 언어로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청각 손상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를 만

들어 내는 것, 장애해방을 위해 극복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를 생산하고 차별하는 사회와 문화인 셈이다. 그런데 허는 장애를 기술만 충분하다면 극복할 수 있는 기능부전의 문제, 마치 의료기술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장애는 불운한 개인—그 불운이 타고난 것이든 살아가다 겪은 것이든—의 문제가 된다.







감지 기능을 갖춘 실리콘 망막을 탑재한다면 우리는 밤에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 생체공학 의족은 일차적으로는 상이군인에게 적용되겠지만, 조금만 변형하면 전투 병사를 슈퍼 군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아마도 이것이 산업적·군사적 야심을 가진 이들이 장애 극복의

기술적 꿈을 후원하는 이유일 것이다).

‘장애인’과 ‘슈퍼맨’이 만나는 이곳에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비장애중심주의’라고 옮기는 ‘ableism’은 능력에 따른 차별 시스템이다. 그 한쪽 끝에는 능력 없는 ‘장애인’이 있고 반대쪽에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있다. 슈퍼맨은 ‘ableism’의 구현이지 극복이 아니다. 말하자면 슈퍼맨은 인간의 극복이 아니라 인간적 꿈의 실현이다. 그는 소위 ‘정상적 인간’이 가진 능력—장애인을 차별하는 그 기준—을 정상적 인간 이상으로 구현하는 사람이다. 슈퍼맨을 추구할 때 생체공학은 ‘ableism’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다만 몇몇 장애인을 ‘disability’, 즉 장애라는 규정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이다. (언젠가 어떤 명상 그룹에서 ‘뇌호흡’을 통해 지적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권유한 적이 있다. 그 효력은 차치하고, 나는 그들이 명상을 경쟁적 입시 시스템을 해결하는 데 쓰기보다 입시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데 쓰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슈퍼맨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장애

를 낳는 ‘ableism’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장애를 없애는 대신 몇몇 장애인을 장애로부터 탈출시킬 뿐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다른 누군가로 채울 것이다. 해당 기술을 이용할 만큼 충분한 재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남는다. 그리고 기술 수준의 활용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술사회가 낳은 장애인이 될 것이다. 장애가 계급화된 세상에서 계급이 장애가 되는 세상으로 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장애가 사라지는 않는다. 장애를 양산하는 ‘ableism’에 근거해서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한 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니코렐리스나 허의 실험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기술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우회’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다른 어떤 가능성을 떠올렸다. 생체공학자들은 손상된 정상성을 우회해서 슈퍼맨이 된 장애인을 떠올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기술과 더불어 아예 ‘ableism’(장애-정상-슈퍼맨)의 경로에서 벗어나는 상상을 해보았다. 우회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목표 자체를 우회하는 것, 다시 말해 다른 경로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여기서 니체의 ‘위버멘쉬’를 떠올린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인간은 걷고 뛰는 것에서 시작해서 춤추고 나는 법까지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허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한 미래 세계와 닮았다. 하지만 슈퍼맨과 위버멘쉬는 다르다. 슈퍼맨이 인간적인 것의 실현, 인간적 가치의 탁월한 구현을 뜻한다면, 위버멘쉬는 인간적인 것의 극복,

인간적 가치의 전도를 가리킨다. 슈퍼맨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최고 능력의 발현을 뜻한다면, 위버멘쉬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슈퍼맨은 우리에게 결핍된 능력의 구현체지만 위버멘쉬는 우리에게 결핍이 없음을 아는 순간 곧바로 발휘되는 능력의 구현체이다.

우리는 생체공학 기술과 더불어 걷고 뛰고 춤출 수도 있겠지만 슈퍼맨의 길과 위버멘쉬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다. 첨단 기술이 구현된 의족을 착용하고 비장애인 무희와 다름없는 몸짓, 더 나아가 그보다 더 빠르고 높은 스텝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인간 몸짓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떠받드는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립적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함께 서는 것이야말로 자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필요도 있다. 기술을 전자의 관점에서 채택하느냐 후자의 관점에서 채택하느냐에 따라 지체장애인이 일어서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아주 다른 것을 의미할 것이다. 각 기술이 갖는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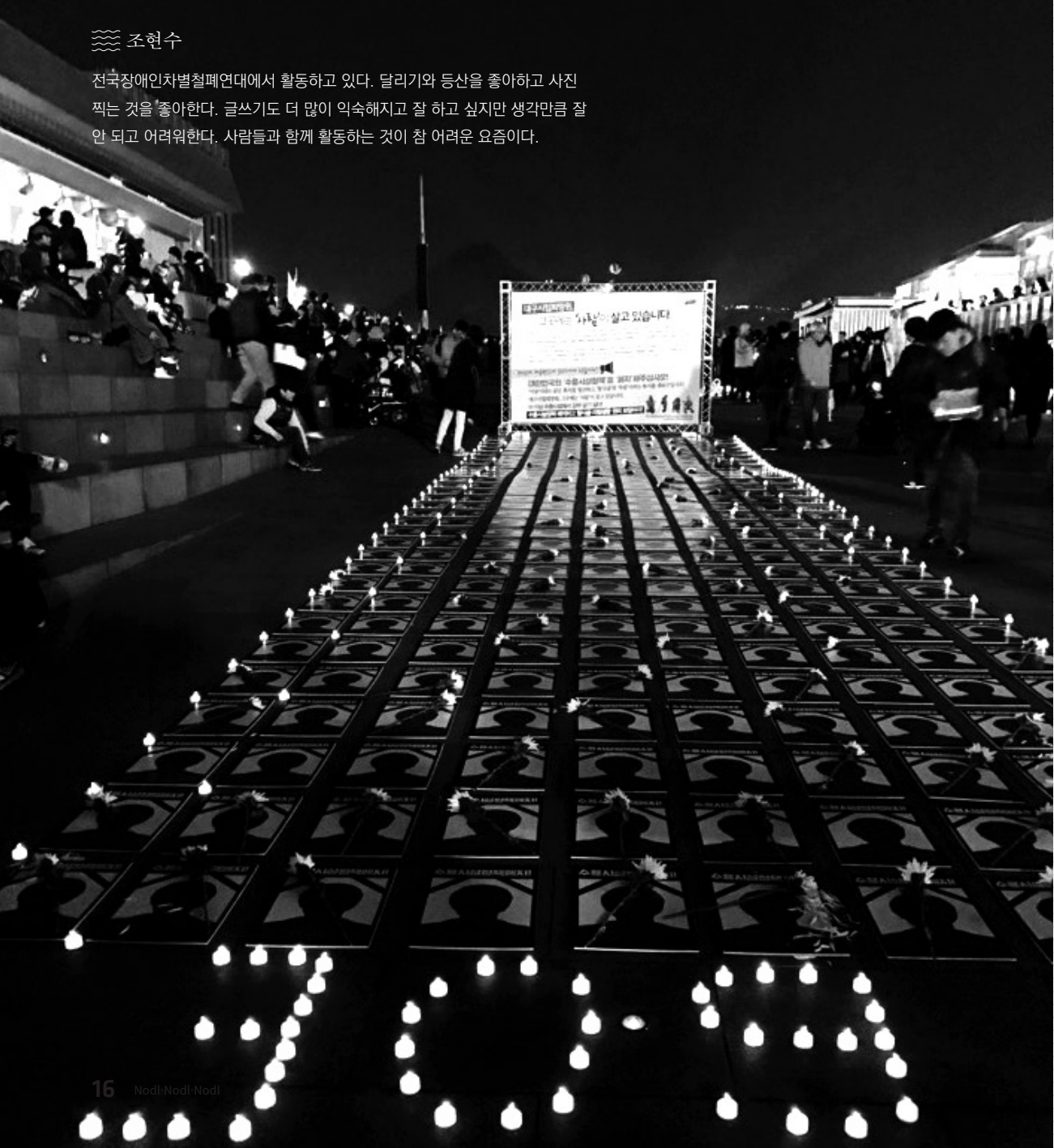
그리고 보면 2천 년 전의 예수는 2천 년 후의 생체공학자와 동일한 기적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행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복음만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웠고 또 누군가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이다. 위버멘쉬의 춤은 여기서 시작한다.



# 혁명의 시작! 2017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달리기와 등산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글쓰기도 더 많이 익숙해지고 잘 하고 싶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어려워한다.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참 어려운 요즘이다.



2017년 4월 20일은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로서 올해로 서른일곱 번째를 맞이합니다. 장애인의 차별받는 현실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동정’과 ‘시혜’의 관점으로 장애인을 대상화시켰던 ‘장애인의 날’. 우리는 하루 잔치를 거부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공동투쟁단을 구성하여 많은 이들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5월 1일 ‘노동절’, 여성들에게는 3월 8일 ‘여성의 날’, 성소수자들에게는 5월 17일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 있는 것처럼, 4월 20일은 이제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연대투쟁의 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는 또 다시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나라냐?” 작년 10월말 터져 나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촛불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결국 박근혜 파면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촛불은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제도들과 정책들의 폐기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박근혜로 표현된 낯은 사회의 폐단들,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근본적인 모순들이 광장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광장을 채웠습니다. 그 광장의 한 가운데, 박근혜와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제도로 폐기를 취급받아왔던 장애인 역시 함께 외쳤습니다. “박근혜 퇴진이 복지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박근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박근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부정수급 색출’을 1호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3조원의 재정 절감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이른바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리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앞세워 복지를 축소했습니다. 박근혜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했습니다. 장애와 가난을 개인과 가족이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몰아붙였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근혜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국가폭력의 얼굴 그 자체였으며, 그렇기에 박근혜 퇴진만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적폐’는 바로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사회가 만든 감옥 ‘장애인 수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파면과 그 이후 조기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한복판에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 있으며, 올해 420투쟁은 3대 적폐 청산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애등급제’는 한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



‘장애인 수용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을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제’하는,  
‘사회가 만든 감옥’입니다.



별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의학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장애인의 삶을 저울질하는 공포정치입니다. 장애등급제의 폐지 없이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박근혜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신의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의 결과물은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제를 중증과 경증으로 이름만 바꾼 ‘장애등급제 개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은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양의무제’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시키고 대물림하는 적폐입니다. 실제로 가난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

이 117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이유로 탈락되었으나, 탈락자 중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나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화되었지만 권리성은 오히려 후퇴하였고, 수급자 수도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가 아닌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만이 한국 사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전체 국민 5%의 빈곤의 문제인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 국민총생산 1%에 해당하는 예산만 있으면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을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제’하는, ‘사회가 만든 감옥’입니다. 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인들을 마치 장난치듯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충격을 줬던 ‘남원 평화의

집’. 최근 6년 동안 무려 309명이 시설에서 사망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면서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리고 있는 ‘대구시립 희망원’.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을 포함해 누군가를 가두고 인권을 유린한 역사는 196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오래된 적폐 중 하나입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수용시설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중심으로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졌지만, 한국은 여전히 시설 중심 정책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한 구조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을 폐지하는 것만이 인권 유린의 참혹한 역사를 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17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슬로건은 ‘혁명의 시작’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문제로 정의되었고 문제로 다뤄졌던 장애인이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곧 ‘혁명’이고 이번 420투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1,700일 가깝게 투쟁했던 역사가,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설 내 인권유린에 맞선 투쟁들이 바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420투쟁에서는 문제로서 정의된 노동자와, 문제로서 정의된 빈민과, 문제로서 정의된 성소수자와, 문제로서 정의된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 살맛나는 세상을 향한 혁명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해 420투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노들바람』이 완성되고 지금 이 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엔 420투쟁의 일정 절반 이상이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수용시설 정책 폐지를 위한 탈시설투쟁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래 420투쟁 일정들과 이후 투쟁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연대해주시면 우리의 ‘혁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2017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주요 일정**

- 3월 25일 13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 4월 5일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나무를 심자!” 탈시설 나무 대선후보 전달 기자회견
- 4월 11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4월 17일 “장애등급제 희생자 송국현을 잊지말아요” 송국현 3주기 추모제
- 4월 17일~20일 15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서울시청 바스락홀)
-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 4월 20일~21일 420 전국 집중 1박2일 투쟁

**2017년 420 장애인권위원회 함께 해주세요!**

- 문의  
Tel. 02)739-1420 / E-mail sadd@daum.net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sadd



(QR코드로 바로 신청하기)



【장판 핫이슈】

# 한국사회가 만든 복지 참사, 희망원

## ‘희망원’을 만든 자들이 이제 희망원 참사를 해결하라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육장에 온 걸 환영해요.”

지난 22년은, 1993년 그가 희망원에 입소한 첫 날. 한 식구가 건넨 ‘냉소적 인사말’의 이유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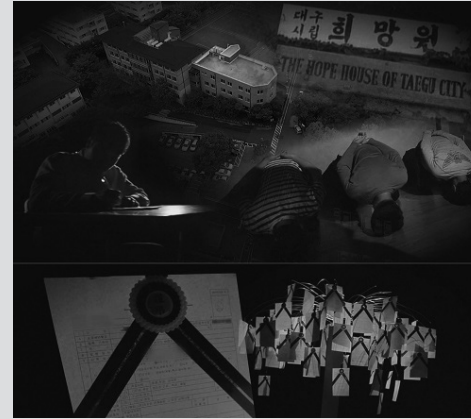
(「한겨레」, 「폭행, 갈취, 강제노동... 2016년판 형제복지원인가」, 2016. 8. 26.에서)

### ● 희망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희망원은 1958년 12월 31일, 대구시에서 설립한 시립 시설이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권을 수탁 받아 37년째 운영하고 있다. 산하에는 노숙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시설 4개소가 있으며, 이곳에는 1,150명의 생활인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이 되면, 희망원 인권 유린과 비리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2016년 4월 시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 의해 생활인에 대한 폭행 및 가혹 사건이 알려졌으며, 같은 해 6월 생활인 다수의 사망 조작, 강제노동 및 착취, 독방 감금실 운영, 급식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인권 유린과 비리 사실이 터져 나왔다. SBS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이 보다 널리 알려지면서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검찰 수사, 대구시 특별감사 등이 탄력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1970년대와 1980년대 대한민국의 권위주의적인 군부통치 및 비민주적인 사회 분위기의 영향이 희망원 설립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투영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쇠창살로 이루어진 공간에 강제로 집단 수용하고, 질서 유지 및 이탈 방지를 위하여 독방에 가두거나 쇠사슬을 채우는 등 학대하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아닌 종사자들이 시설 거주인 중 일명 ‘동장’을 두어 동료 거주인들을 통제하도록 하면서 군대식 일석점호 실시, 생활지도를 이유로 한 신체적 체벌, 폭언 및 폭행, ‘엎드려뻥쳐’ 및 바닥에 머리박기(일명 ‘원산폭격’) 등 가혹 행위가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등 흡사 ‘인간 사육장’과 같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희망원은 생활인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내부규칙을 두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성교제, 사행행위, 금전거래 등의 위반행위를 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 최장 47일 ‘안정실’이라는 이름의 독방에 강제 격리하기도 했다.

시설 거주 생활인 다수가 상식선을 넘어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309명의 생

활인(전체 정원의 26.9%, 연평균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기준 국내 1,000명당 사망자 5.4명의 7.5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2년 동안(1975년~1987년) 531명(연평균 44.3명)이 숨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문제적인 수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망자의 원인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최소 29명 이상의 사망자가 원인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가령 외인사로 사망 진단을 하고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다던가,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들이 수차례 확인된 것이다.

비자금 조성을 위한 횡령 비리에는 공무원마저 공모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들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177명에 대하여 생계급여를 국가에 허위로 청구해 6억 5,7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공무원들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부정 지급했다. 또 식당 내 식자재 납품업체들과의 공모해 2011년 3월부터 4년 6개월간 양이나 단가를 조작하고, 제공되지 않은 품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5억 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여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음이 드러났다.

### ● 사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런 희망원 비자금 조성 및 인권 침해 사실들에 대해 현직 신부 및

수녀 등을 포함하여 총 2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 보도로만 보면 사건의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 중 확인된 인권 침해 및 비리 정황은 2016년부터 내부 고발자 및 노동조합, 시민사회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혹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은 희망원에서 형성된 비자금의 상당액이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로 유입되었던 점을 확인하고도 그 유통 경로와 지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공모한 식품 판매업체들이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원뿐 아니라 대구정신병원 및 교구 산하의 병원과 복지시설들에 똑같이 납품해 온 사실이 있음에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교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였으며, 수사를 마무리 단계로 진입시켰다.

천주교대구대교구를 포함한 한국사회 교단은 어떤 반성도 없다. 대구대교구는 지난 10월 SBS 방송이 방영되는 날에 맞춰 산하 『매일신문』을 통해 「희망원, 자유롭다」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방송 후에는 「편파방송에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자 원장 신부를 포함한 간부 24명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전원 사퇴하겠다고 사과를 발표했고, 11월 조환길 대주교(유지재단 이사장)는 운영권 반납 의사를 대구시에 공식 전달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검찰 중간 수사결과 등을 통해 사건이 사실로 확인된 지금까지 희망원에서

는 그 누구도 사퇴하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다. 유지재단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희망원을 운영하고 있다. 오히려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전 원장 신부를 포함한 핵심 가해자들은 유지재단의 변호 아래 대구 최고의 로펌을 통해 변호를 받기 시작했으며, 얼마 전에는 심심하다고 장애인 생활인에게 고무탄을 겨냥하여 발사한 직원이 처음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로 유유히 풀려났다.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할 뿐이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보재활원, 청암재단에 이어 임기 내에만 3번째로 발생한 시설문제에도 초연했다. 2017년 초 정기 인사를 통해 대구희망원대책위와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오던 보건복지국장을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발령시켜, ‘공공 운영’과 ‘탈시설 및 수용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대책위와의 협의 자세를 결렬시켰다.

그 후 3월 13일 발표된 희망원 감사 결과와 혁신 대책은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대구시 감사관실 최대의 인원이 투입되었다는 감사 결과는 추가적인 인권유린과 비리 의혹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에서 앞서 발표한 내용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했다. 혁신 대책은 더욱 가관이다. 운영 개선 사항 20개 중 18개가 입·퇴소 및 내부규정 상의 절차 정상화, 회계 질서 확립, 편의시설 설치 등이었고, 137개의 CCTV를 설치하겠다는 식의 ‘혁신’이란 단어가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나머지 2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연간 40명~50명이 죽어가는 시설에서) 25명 정도의 탈시설을 지원해보겠다는 것과 생활인들의 대폭적인 타 시설로의 전원조치였으며, 다른 하나는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었다. 결국 핵심은 다른 수탁 법인을 통해 사태를 수습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던 셈이다.

#### ● 참사를 조장한 자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대구시의 말 뿐인 ‘혁신 대책’은 2009년의 연장선이었다. 지난 2009년 대구시는 최초로 대구지역 장애인 생활시설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당장 지역으로 나와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한 53%의 장애인들에게 말했다. “전국 최고의 시설을 만들겠다”고. 이번 희망원 대책 발표에서도 권영진 시장은 공교롭게 이런 말을 뱉었다. “과감한 혁신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다시는 인권유린과 운영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생활인 중심의 복지시설을 만들겠다”고. 기만의 역사가 반복된 것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희망원’이 대구만의 희망원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 희망원은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연속 4회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2005년에는 정부가 전국 노숙인 시설 1위로 선정된 곳이었으며, 2006년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어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미 희망원은 한국사회 장애



인복지와 사회복지의 상징적인 적폐가 되었다. 희망원의 문제가 한 지역의 문제로, 한 시설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벌어진 복지 참사의 근원적인 문제는 공적 책임을 떠넘기는 민간 위탁, 그리고 집단 수용이라는 비인간적인 복지 방식에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또 다른 위탁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적 책임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또 다른 수용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제 이 희대의 참사를 조장하고 획책해 온 이들이 직접 책임지고 대담해야 할 차례다. 대구의 희망원과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희망원들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투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엄중하게 물어보자. 대구시와 정부의 높디높은 관료들에게, 제2의 노무현과 이명박, 그리고 또 다시 나타날 박근혜들에게.

찾아가서 말해보자. “나는 너희들의 310번째 희생양이 될 수 없다”라고.



# R전동 2017년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

윤경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 4월 20일은?

네 장애인의 날이 아닙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지요.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은 제가 이러쿵저러쿵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분들일 것 같아 설명을 거두고 싶지만, 누군가에게 선물로 소식을 주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살짝 설명을 붙입니다.

4월 20일은 국가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날 하루 텔레비전에는 장애인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너무 슬픈 사연을 가진 장애인, 장애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비장애인처럼 살아가는 장애인 등등 각종 사연을 가진 장애인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웬 정치인과 유명인들도 함께 많이 나옵니다. 단 이때 주인공은 장애인이 아니라 정치인과 유명인들입니다. 라면이며, 쌀을 들고 장애인시설에 방문해서 인자한 웃음을 짓거나 때론 눈물을 흘리며 장애인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또 매년 청와대로 장애인들을 초청해 대통령이 밥도 주고 선물도 줬는데 올해는 대통령이 없으니 권한대행이 하려나 싶습니다.

이렇게 별 탈 없이 365일 중 딱 하루 장애인이 행복해지는 날, 이 모든 장면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2002년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364일 내내 방구석이나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하는, 온갖 차별로 얼룩진 세상을 놔두고, 단 하루 장애인에게 세상의 모든 동정을 퍼붓는 세상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장애인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저 사람처럼 네가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거라.’라는 메시지에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장애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와 문화이고, 바뀌어야 할 것 역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2002년부터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르고 매년 세상을 향해 아주 썩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 ○ ‘뭘 이런 나라가 다 있지?’

2016년 10월 한국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많이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들로부터 터져 나오는 대한민국의 각종 비리와 부패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살아왔는가?’를 묻게 했고, ‘아~ 이래서 이렇게 살기가 힘들었구나.’ 깨닫게 했고,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구나.’ 안도하거나 허탈하게 했습니다.

장애인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2년 8월 21일 시작한 광화문 지하역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농성’은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권과 고스란히 같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벌써 1700일 가까이 이르고 있는 광화문농성은 농성 내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부에 대화를 하자고 해도 막혔고, 토론을 하자고 해도 막혔고, 어떤 투쟁을 해도 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광화문 지하역사 농성장에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부양의무제 때문에,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 때문에, 장애인수용시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정사진만 늘어났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귀를 틀어막고,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입으로는 이상한 말만 내뱉었습니다. 진짜 이상했습니다. ‘뭘 이런 나라가 다 있지?’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정권 자체가 거짓덩어리였던 나라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에 의해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받던 장애인과 가난한 우리들의 혁명은 꽤 거칩니다. 한국 장애인복지 곳곳에 스민 암세포 같은 장애등급제를 없애자는 것. 장애인의 영혼까지 죽이는 장애인수용시설을 없애자는 것. 한국 빈민복지의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지는 부양의무제를 없애자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가볍지도 쉽지도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예산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며 장애등급제라는 코르셋에 장애인을 끼워 맞추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맞아죽든 굶어죽든 아파죽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수용시설을 없애고, 장애인이 동네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세상이 된다면 장애인만이 아닌 비장애인도 조금은 더 각자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가난한 가족이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고 서로의 가난을 책임지지 않고 이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회도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혁명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미래에 대해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회가 가능합니다!

## ○ ‘혁명하라!’

2017년, 4월 20일을 남들이 부르라는 대로 부르길 거부한 이들은 마침내 “혁명”이라는 요상한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단어를 2017년 다시 소환시켰습니다. 누군가

## ○ 2017년 420투쟁과 R전동

이렇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3대 혁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20투쟁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R전동”이 있습니다. R전동은 이 혁명의 시기 420투쟁의 곳곳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투쟁하는 이들

Red(붉은),  
Revolution(혁명),  
Right(권리),  
알바...



의 모임입니다. R은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함께하는 이들은 이런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Red(붉은), Revolution(혁명), Right(권리), 알바...” 전동에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의 전동을 의미하기로 하고, 전동(戰動) 움직이며 싸운다는 한자음 풀이도 서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동휠체어 등장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투쟁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권운동에서 전동휠체어는 아주 중요하지요.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R전동의 구성원들은 오랜 시간 시설에서 살다가 지역 사회로 나와 자립을 하며 살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들이 다수입니다.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축적된 분노의 크기가 큰 만큼 더 끈질기고 화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R전동은 정기적으로 모여 그간 활동에 대

한 소감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잘 모일 수 있을지 상의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발과 조끼도 맞췄습니다.

우리의 3대 혁명과제가 이뤄진다면 그중 매우 많은 부분이 R전동의 투쟁 덕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R전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여겨지던 이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혁명에 당신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 당장

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차별에 맞서 저항하고, 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행복한 사람.

### 차별금지법 금지의 10년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에는 ‘병력(病歷),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학력(學歷) 등’ 총 20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됐다. 입법예고는 경총과 보수 언론, 보수 교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차별금지법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고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윤을 위해서는 차별해도 된다, 동성애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였다. 법무부는 며칠 만에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는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했다. 이렇게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해 있고, 당연시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금지 상황에 놓여 있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의원들은 항의 전화 폭탄을 맞았고, 낙선 위협에 시달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와 지역 인권조례들은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마찬가지로 운명을 마주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인권’ 개념이 들어가거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옹호하는 법안들은 모조리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공격받았고, 법안 발의가 철회되거나 수정됐다. 성북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음에도 반동성애 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집행이 거부당했고,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통과시킨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거부했다. 대형교회를 위시한 차별금지법 반대진영의 ‘세력’은 투표 영향력은 실종된 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기성 정치인들로 인해 위세를 증명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이나 노동계약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수만, 수십만 명의 지지를 모아도 요구를 관철하기 힘들었지만, 차별금지법 반대자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그 일들을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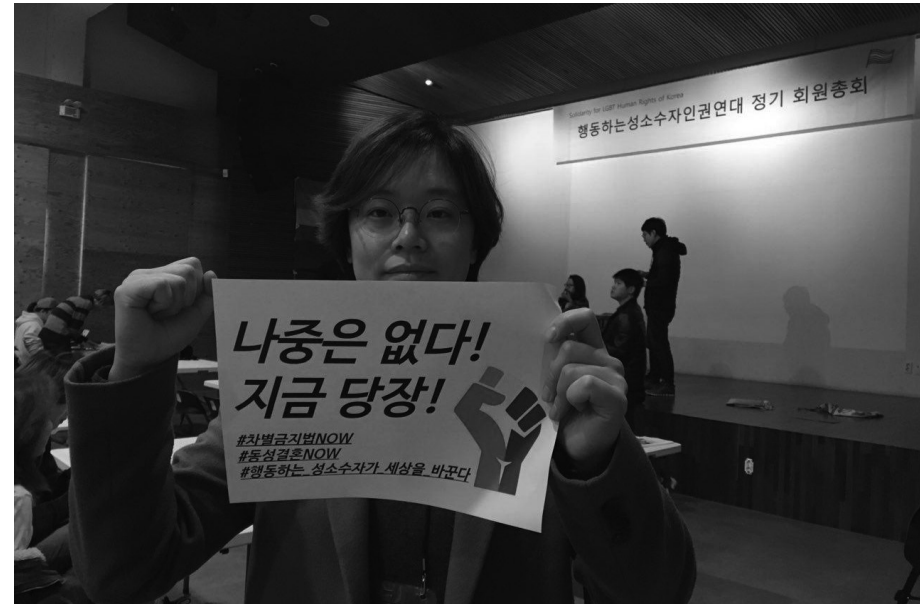
### 혐오의 정치와 촛불의 정치

어째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찬성-반대의 세력 싸움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우리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입바른 소리조차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불가능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10년은 한국 사회가 혐오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종북 좌파', 이주민, 무슬림, 성소수자는 물론이거니와 세월호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사회를 망치는 주범이라며 마녀사냥 당했다. 일베와 극우 단체들이 극단적인 행태로 혐오의 상징이 됐지만, 기실 마녀사냥의 주된 주체는 국가였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당해산을 당했고, 이주민들은 범죄자 취급당하며 강제추방 됐으며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감옥에 가둔 것도 국가였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극우단체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공작정치의 실체가 드러났다. 혐오의 정치는 소수의 이익에만 눈먼 탐욕스런 지배자들에게 꼭 필요한 무기였다. 갑질이 판치고 모욕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에서 혐오는 기세등등했다.

차별은 존엄을 파괴하고, 정의의 감각을 마비시킨다. 환상에 불과한 정상성의 잣대가 모든 인간을 짓누르는데도, 별난 존재들이 세상을 위협

한다는 착각이 통용된다. 몇 년 전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성별을 여성/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만 한정지어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여성/남성이면서 성소수자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해 있고 임금격차를 비롯해 여성차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여성 상위 시대라는 거짓말이 판을 친다. 노조파괴와 뇌물세 수백억을 들이는 자들의 탐욕이 아니라 강성노조가 나라를 망친다고 열을 올린다. 차별과 혐오의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는 복잡하고 교차하는 정체성을 단순화시킨다는 점이다.

이 혐오 정치의 독주를 멈춘 것은 광장에 모인 촛불이었다. 이질적이고 다양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재확인한 불의와 부패에 맞서 행동하면서 변화를 성취하고 있다. 변화를 요구하는 촛불을 가능케 한 길에는 혐오에 맞선 끈질긴 저항과 연대가 있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싸움과 '폭력 시위' 프레임에 맞서 국가 폭력에 저항한 사람들, 여성 혐오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투쟁. 이런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소수자 혐오를 경계하는 집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다. 광장에 모인 촛불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세월호 참사부터 비정규직 문제, 사드 배치와 장애인 차별 등 존엄한 삶을 짓밟는 문제들로 시야를 넓혔다. 기성 사회에서 발언권을 박탈당하고 낮은 존재로만 여겨지던 성소수자들이 광장의 연단에 올라 환영받았다.



나는 여성이고 동성애자입니다. 내 인권을 반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

###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는 탄핵 당했고, 우익 정치세력은 분열하고 주변화 됐다. 변화의 동력은 전적으로 거리의 촛불에서 나왔다. 앞으로도 변화의 폭과 방향은 운동의 힘이 좌우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그 변화의 폭과 방향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지표다. 앞서 말했듯이,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법이었고, 문재인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보수 정권 아래에서 차별금지법은 금기 반열에 올랐는데, 여기에는 극우보수 개신교 세력과 '이명박근혜' 정권만이 아니라 그에 동조한 야권 정치인들도 중요한 구실을 했다. 기성정치인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 혐오에 맞서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한 일이 없었다.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에는 반대하

지만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괴상한 논리로 혐오를 조장하기 바빴다. '장애인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장애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거나 '인종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흑인인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가능한가?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보수기독교 단체를 찾아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핵심 동원 세력이며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은 둘째 치자. 자신에 대한 지지를 구하면서 왜 소수자들을 먹잇감으로 던져주는가? "나는 여성이고 동성애자입니다. 내 인권을 반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 하는 호소에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답하는 단호함을 왜 혐오 조장 세력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일까? 문재인을 향한 성소수자들의 항의행동이 있었던 날, 청중석에 있던 문재인 지지자들은 의미심장하게도 '나중에'를 연호했다.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 속에 인권을 유예당한 성소수자들에게 '나중에'는 마치 촛불이 만들어낸 변화에서 너희들만은 예외라는 거부의 외침처럼 들렸다.

성소수자들은 '나중에'에 '지금 당장'으로 화답했다. 다른 모든 소수자들이 그런 것처럼, 성소수자들 또한 저항을 통해 변화하고 배웠다. 차별을 감내하지 않을 때 존엄할 수 있다는 것을, 억압에 맞서 싸울 때 변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차별금지법은 극심한 성소수자 혐오를 확인하는 계기였지만, 동시에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혐오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열쇠였다. 성소수자들에게 차별금지법은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상징하는 요구가 됐다. 한편 지난 수

년 동안 점증하는 혐오에 맞선 연대가 성장했다.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자들이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모습을 봤고, 불의와 혐오에 맞서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아니지만, '나는 성소수자가 아니지만' 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에게 좋은 것은 모두에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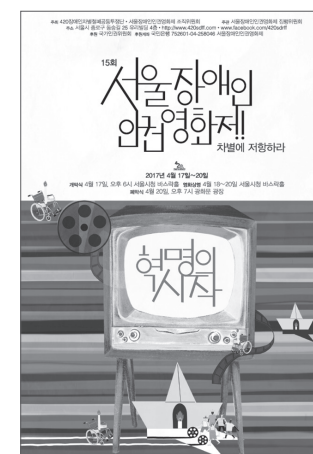
차별과 혐오는 감내할 때 작동한다. '차별에 저항하라'는 장애인 운동의 모토는 그런 면에서 유효하다. 차별과 혐오는 금지함으로써가 아니라 저항함으로써 힘을 잃는다. 우리는 지금 저항하고 있고, 저항하기 때문에 연대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취할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함께 말하고 행동하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너를 보고 싶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민아영

노들장애인야학 교사이자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활동가입니다. 목 디스크에 살짝 걸린 것 같아 배개를 바꿨는데, 그마저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살짝 기분이 좋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라텍스를 사야할까요? 일과를 마치고 누워서 웹툰 보는 걸 좋아합니다. 「나빌레라」라는 작품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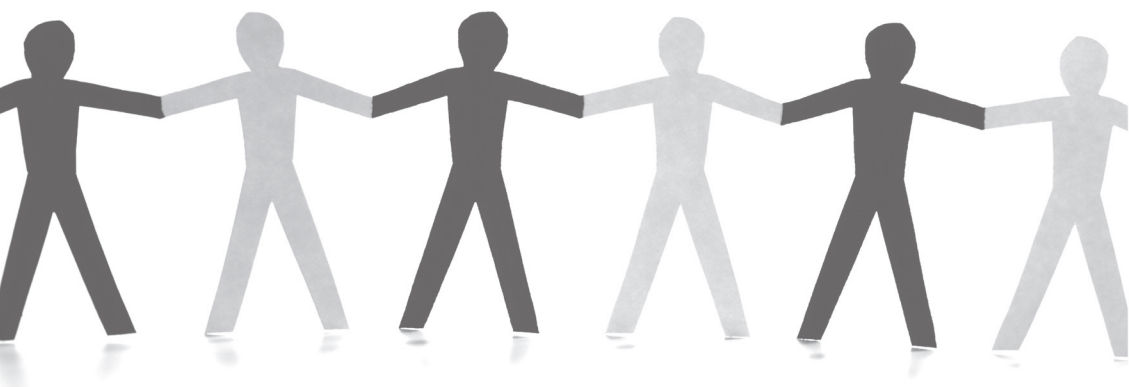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 평일에 미루어둔 잠을 자고 일어나 세수만 한 채 몽롱한 기운으로 촛불광장에 나갔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4년 넘게 이어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선전 활동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진행했지요. 그런데 기분은 참 묘하더군요. 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또 서로에게 힘내자는 말을 나누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당연한 걸까 싶기도 하다가 몽클하더군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바



뀌낼 수 있다는 희열이 팍!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는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박근혜를 파면시킨 이 힘이 여기서 끝나

면 어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 뿌리 뽑지 못한 '적폐'가 많잖아요? 야학 학생 분들과 휠체어를 타는 제 친구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라는 큰 산도 옮겨버린 시대에 탄력을 더해서 '혁명'을 시작해보려 해요. 혁명? 콧방귀 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혁명이 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맛집 탐방도 하고, 돈 벌다가 지치면 자기 집에 돌아가





# 〈문지마 흥신소-광화문 불나방〉 제작기 연출자와 똥싸네21 기자의 인터뷰 자문자답

정민구

이래도 되나 싶게 꿀 떨어지는 심을 갖고 있는 민구예요.

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쉬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장애인을 비롯한 모두가 누리는 것이예요. 이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보장받게 했던 이전의 투쟁을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의 혁명은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 동안 가질 계획이에요.(발행되면 이미 지난 일일 수도 있겠군요. ㅎㅎ)

영화는 다양한 의미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 시대의 일상과 생각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의 모습도 반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 속 장애인은 무기력하거나 무지하거나 혹은 한 가지에 천재성을 보이

면서 극적인 감동을 이끌어내는 소재로 많이 쓰이지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주류적인 시각은 도와주어야 할 사람 혹은 나약한 사람 정도로 취급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장애인이라 해서 열정이 없거나, 판단이 흐리지 않거든요. 이젠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러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보호와 동정적인 시각은 온전히 사회 제도로 반영되고, 장애인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취급되죠. 노들장애인야학이 존재했던 시기부터 이를 바꿔나가려고 열심히 투쟁투쟁(!)을 했지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이런 투쟁을 담고, 또 그러한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리는 작업을 해요. 많은

이들이 영화제를 대중과의 호흡, 선전으로 이해하지요. 저 또한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만들어왔던 사람들이 지난날을 추억하면서 서로의 연결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투쟁이라는 것이 서로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몸과 정신이 지치기 쉽고 감정이 다치기도 쉬운 일이니까요. 또 우리의 현실과 투쟁을 처음 접한 사람이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 수 있도록 반겨주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연결을 확인하면, 우리가 말하는 혁명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지마 흥신소-광화문 불나방〉입니다.

아우. 오래간만에 긴 '한글'을 쓰게 되었네요. (어색어색)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손 가는대로 쓸게요.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문지마 흥신소-광화문 불나방〉을 지예와 함께 대본 쓰고 연출한 민구라고 해요.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겠죠? 아직 개봉도 안했으니까요. ㅋㅋ 이번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개봉하니까 보러 오세요. 참! 『노들바람』 봄호가 나올 때 쯤이면 영화제가 끝났겠군요.(아 몰랑) 지금부터 아무도 못 본 영화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형식은 자문자답. 내가 묻고 내가 답한다는 말이쑈. 뱃, 감정이입을 위해 '똥싸네21' 기자가 묻고 내가 답할 거예요.

● **싸네21: 〈문지마 흥신소-광화문 불나방〉은 왜 만들었나요?**

○ **밍:** 글썩요. 왜 만들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어찌다보니 만들게 되었네요. 세상살이가 어찌다의 연속 아니겠어요?

● **싸네21: 정말 싸는 소리만 하시네요. 그냥 같까...**

○ **밍:** 〈문지마 흥신소-광화문 불나방〉은 2016년 서울시인권담당관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만들게 되었어요. 노들야학의 큰 기둥, 배승천 활동가가 사업을 써서 선정된 이후 지예와 제가 극본, 연출을 하고 장판의 큰 기둥, 장호경 활동가가 촬영, 편집을 맡아줬어요. 연기자들은 노들야학 교사&학생 그리고 장판의 활동가 중 꼬시고 꼬셔서 먼저 넘어오는 순서대로 섭외했습니다.

● **싸네21: 그렇군요. 진작에 그렇게 성실히 대답해 주지 그러셨어요.**

○ **밍:** 췌!



● **싸네21: 얘기를 듣자하니 배우 캐스팅 과정이 엉망이었네요. 아직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연기도 엉망일 거 같은데... 연출하면서 속상했겠어요.**

○ **밍:** 당신 질문이 더 엉망이라 속상하네요. 사실 시나리오 작업부터 배우들이랑 같이 했어요. 제가 한 일은 장애인&비장애인 배우들의 경험담 혹은 전해들은 이야기를 글로 옮겨 적는 거예요. 제1막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의 시나리오에는 배우 오지우 씨의 실제 경험담에 약간의 MSG만 첨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를 본인이 직접 연기 했어요. 그것도 현장에 있던 모든 배우, 스태프 화들짝 놀랄 정도로 열연을 펼쳤죠. 그런 열연이 가능한 건 본인의 이야기니까 가능했겠죠. 2막, 3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화의 힘인 것 같아요.

● **싸네21: 그렇군요. 엉망이라는 말은 취소하고 사과하죠.**

○ **밍:** 사과는 받아주겠는데 말투는 왜 따라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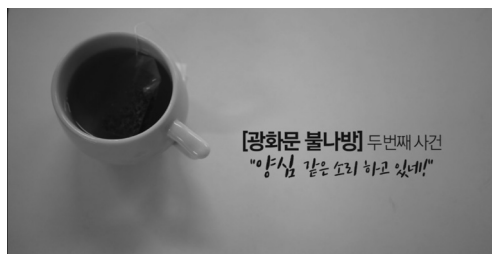
● **싸네21: 아. 혼자 복치고 장구치다보니 헛갈리네요. 흠흠. 영화가 총 3막으로 구성돼 있나요?**

○ **밍:** 네. 이렇게 구성돼 있죠.  
제1막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2막 <'양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3막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 **싸네21: 각각의 제목이 독특하네요. 제목 정하실 때 심사가 뒤틀려 계셨나봐요.**

○ **밍:** 그쵸? 제대로 보셨네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뒤틀린 심사를 뒤틀고 싶었어요.

● **싸네21: 그게 명미?**



○ **밍:** 예를 들면, 1막에서 지우는 승천을 사랑하고 승천도 지우를 사랑하죠. 하지만 그 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에요.

● **싸네21: 그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 **밍:** 심플하게 설명하면 지우는 승천을 LOVE 하지만 승천은 지우를(음.....) 동정한다는 말이에요. 유감일?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지우는 승천을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친한 사람'으로 보지만 승천은 지우를 '내가 도와줘야 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어요. 승천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우가 가슴 속에 품은 연정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예요.

● **싸네21: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2막은요?**

○ **밍:** 내용도 짧은데 다 얘기하면 어떡하죠?

● **싸네21: 알아서 짧게.**

○ **밍:** 2막도 배우의 자전적인 내용이죠. 장애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차고 있던 기저귀까지 보여줘 가며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심 따

위의 감정은 사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살기 위해 양심을 버리길 강요하는 세상의 뒤틀린 심사에 대한 얘기에요.

● **싸네21: 3막은?**

○ **밍:**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하죠. 인터뷰하기 귀찮아서 이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 **싸네21: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원래 계획은 3막까지였는데 쓰다 보니 힘들어서 중간에 끊었다고 하던데...**

○ **밍:** 소식이 빠르시네. 3막은 가족같이 대해주는 좋은 시설을 찾아 자식을 시설에 보내려는 엄마와 세상에 좋은 시설은 없다고 믿는 자식에 대한 내용이죠. 본격적인 내용 전개는 다음 영화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 **싸네21: 흥신소 시리즈가 이어지나요? 언제쯤 제작하실 예정인지?**

○ **밍:** 그건 온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날로 정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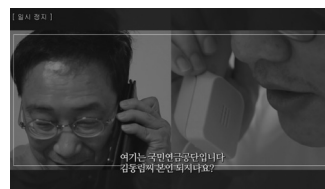
● **싸네21: 문득 든 생각인데요, 흥신소 직원은 언제 나오나요?**

○ **밍:** 참. 그 얘기를 안했네요. 좋은 질문이에요. 위에 말한 모든 사건이 흥신소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1막에서는 사랑고백을 성공하기 위해 지우가 흥신소에 의뢰하고 2막에서는 장애등급 유지를 위해 동림이 흥신소에 의뢰하죠. 의뢰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흥신소 직원이 앞장서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내용입니다.

● **싸네2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 **밍:** 연말에 하는 영화시상식 같은 거 보면 수상자가 나와서 감독, 배우, 스태프 이름 일일이 불러가며 고맙다는 말 하잖아요. TV로 볼 땐 왜 저러나, 그냥 통 쳐서 고맙다고 말하고 끝내지 싶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초반에는 배우들이 반팔을 입고 있어요. 근데 중후반으로 가면 배우들이 잠바를 입고 있죠.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요. 배우 김명학, 조은별, 김이준수, 정수연, 김지윤, 김호식, 오지우, 배승천, 김동림, 주은아, 허신행, 허율. 그리고 촬영편집 장호경, 진행 배승천, 대본.연출 김지예 정민구. 우리 모두 짱짱맨!





【특집】

인간 존재 선언, 2017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회보장위원회 건물 외벽에  
쓰인 붉은 글씨

‘나 박경석,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강혜민

비마이너에서 일한다. 5년간의 용인 출퇴근  
생활을 마감하고 서울살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같이 사는 트로가 벌레 퇴치에  
매진하고 있는 걸 옆에서 응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침 수영 두 달 만에 물에 뜨는  
몸을 가지게 되었다. 둔하지만 예민하다.







‘나 박경석,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빨간색 스프레이를 손에 쥐고 ‘박경석’(전국장 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 말했다. “(인간)이다’라는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 영어로 ‘be동사’죠.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이예요. 시설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의 말을 경찰이 끊었다. ‘박경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휠체어를 밀어 ‘박경석’ 이름 앞에 다시 섰다. ‘박경석’에 스프레이를 여러 번 덧칠한다. 이름은 더욱 선명해진다.

2월 15일,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주차장.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건물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쓰인 한 문장. ‘나 박경석,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그 문장 아래 휠체

어 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외쳤다. “나 ○○○는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나는 나의 권리를 요구한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파괴법이다. 즉각 개정하라!”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마지막 장면이 이와 같았다. 영화는 현실을 반영했고, 영화를 본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를 재연했다. 영화 속 상황이 ‘나의 오늘’과 같았기 때문이다.

● 영국의 현실 :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40여 년을 목수로 일해 온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질환으로 일할 수 없게 되자 질병 수당을 신청한다. 이를 위해 ‘의로 전문가’와 면담하지만, 전문가는 심장 질환과 관계없는 질문만을 할 뿐이다. 결국 다니엘 블레이크는 ‘사지가 멀쩡하기에’ 근로 적합 판정을 받는다. 그는 질병 수당이 아닌 구직 수당을 신청한다. 구직을 위해 ‘노오

력’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사실 일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 고용센터에서 또다시 온갖 모욕을 받은 다니엘 블레이크는 그 건물 앞에 선다. 외벽에 쓴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굶어 죽기 전에 질병 수당 항고 날짜를 잡아줄 것을 요구한다.”

기어코 얻은 항고 날, 면담하러 간 건물 화장실에서 그는 쓰러진다. 항고문은 유서가 됐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 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난 굶절대지 않았죠. 이웃이 어려우면 그들을 도왔습니다. 자선을 구걸하거나 기대지도 않았습시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 사회보장위원회 건물 앞,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이제 현실이 영화를 재연할 순서다. 사회보장위원회 앞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 30여 명이 모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했다.

휠체어 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 장애인 이 아니라, 장애 1급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나는 추경진이고, 나는 황인현이며, 나는 배재현이고, 나는 장애경이며, 나는 김탄진이고, 나는 이규식이며, 나는 최영은이며, 나는 이상우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거지도 아니다. 나는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더는 날 모욕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외쳤다. 나는 김탄진이다, 김탄진이다, 김탄진이다. 장애로 소리가 정확히 발화되지 않아도 그는 분명 외치고 있었다. 그만의 언어로, 그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임을 선언했다.

인간은 이름과 함께 살아간다.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존재를 호명할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름이다.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 지난 삶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전과 다른 삶의 역사를 짓겠다는 다짐이다.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그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부르짖는 것은 내 존재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다. 즉, 이름은 그 존재의 자리다.

‘누구냐’는 물음에 대해 우린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 장애인이라고, 장애 1급이라고 답하지 않는다. 버스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묻지도 않는다. ‘누구냐’는 질문을 받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그러나 복지는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는





다. '무엇'으로 규정할 뿐이다.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로, 장애 1급으로, 장애 2급으로. 내가 '무엇'인가에 따라 복지는 주어진다. '무엇'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사물'로 규정됨을 뜻한다. 복지 수급자가 되는 순간, 그는 인간이 아닌 사물이 된다. 인간적 삶을 박탈당한다. 그래서 복지는 효율화의 대상이 된다.

● **박근혜 복지의 적폐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즉각 개정돼야"**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기관이 사회보장위원회였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재원 조달과 전달체계 및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협의·조정에도 관한 최종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시작은 2015년 4월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였다. 그 회의에서 3조원 재정 절감을 골자로 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그 해 8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1496개(약 1조원) 복지사업을 '정비 대상'으로 지목한다. 정비는 삭감을 의미했다. 대부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었다.

장애인의 경우, 대표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이에 해당했다.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하루 최대 13시간에 불과해 나머지 시간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보충적인 추가 복지사업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 지원이 정부에서 하는 사회복지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중단할 것을 지자체에 압박했다.

그렇게 대구, 인천, 광주, 경북, 강원도 등 전국각지에서 추가 지원하던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됐다. 하루 24시간 지원을 받던 최중증·독거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시간이 반토막 났다. 더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으며, 배가 고파도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가 아니라 인간이었다.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인간답게 살아야 했다. 그래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이날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선언하고, 요구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한 끼 밥이, 하루 한 달이 너무 급하고 소중한데. 복지 확대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박근혜 적폐임을 선언하고 싶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 글은 비마이너에도 실렸습니다.

'다니엘 블레이크'들의 외침,  
첫 번째  
나, 추경진.  
아이들에게  
부양의무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추경진

바깥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고 싶어 탈시설한 추경진입니다

저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입니다. 저는 사고 후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수용시설에서 15년 생활하다 작년 1월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한 지 14개월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탈시설하여 얼마 되지 않아 생계급여가 20만원 삭감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삭감되는 이유를 확인하니 두 명의 자녀가 일을 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생계급여가 삭감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지 8개월밖에 안 되었고 가족들과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데 무슨 소리냐며 따졌습니다.

탈시설을 결심하고 제일 걸렸던 것이 부양의무제였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고, 만나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지금 와서 아이들에게 부양의무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제는 이렇게 가족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내몰습니다. 송파 세 모녀가 죽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부양의무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지 화가 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양의무제는 꼭 없어야 하는 제도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 ‘다니엘 블레이크’들의 외침, 두 번째 나, 조은별. 첫 월급을 받자, 가족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조은별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반대합니다. 복지제도 수급자로 오랜 시간 스스로를 검열했지만 앞에서 깨어 나와 신세계를 맞보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앞으로도 나는 내대로 살고 싶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양의무자가 되었습니다. 25년 평생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오다가 이제 막 3월, 첫 월급을 받고 수급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첫 발 나온 나, 조은별에게 국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부양의무자로 책정해 부양비를 뜯어간 것입니다. 한 달 월급에서 최저생계비가 넘는 금액의 15퍼센트를 부양비로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가족의 수급비에 서 부양비로 책정된 금액이 삭감될 거라고요.

지금은 사회 초년생이어서 15퍼센트만 떼어가지만, 3년이 지나면 30퍼센트를 떼 갈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다른 가구로 분리되면 서 남아있는 나의 가족들이 받게 될 수급비를 계산해봤습니다. 77만원. 학령기의 학생이 있

는 2인 가족이 어떻게 70만원으로 생활을 합니까. 하지만 나는 가족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단돈 몇 십 만원이라도 가족에게 돈을 주는 걸 국가가 알면 그만큼 또 수급비를 덜 주니까요.

25년 동안, 수급비를 받으면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학기마다 꼬박꼬박 재학 증명서를 갖다내고 아르바이트 몰래 하다 소득신고가 되어서 수급비가 삭감 되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내 통장 기록을 보고, 잔액을 조회하고, 끊임없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국가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니, 이제는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나보고 가족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도 나의 가정이 있고, 내 가정은 1인 가정이기 때문

에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모든 가정의 일을 다 합니다.

엄마는 수급비가 적게 나오게 되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수급비가 110만원가량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드니 막막했죠. 3인가구로 110만원 받을 때도 돈이 너무 쥐꼬리 같아 용돈 달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소득이 안 잡히는 일만 골라했습니다. 이제야 이런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고 한 건데,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준 국가가 너무 싫습니다.

나 조은별은, 가난을 책임져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행복하게 살 길 원하는 사람입

니다! 내 어깨가 무거워 죽기 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껏 국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엄마와 꼭 약속했습니다. 부양의무제를 폐지시켜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을 그리고 엄마의 인생을, 동생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부양의무제 폐지돼야 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주세요!

## ‘다니엘 블레이크’들의 외침, 세 번째 나, 요지.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습니다



요지

홀리스행동 활동가

저는 얼마 전 수급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요지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뇌경색, 당뇨 등 질환을 앓아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지난 달 말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렵다보니 저는 동사무소에  
수급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4인 가구  
인데 동사무소 직원이 1인 가구로 얹혀사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신청  
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첫 번째 방문 그리고 두 번  
째 방문 때는 병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일을  
못하느냐고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렇  
게 구청에 신청하면 거의 될 거라는 믿음을  
주고 갔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반이 넘어서 구청에 전화 해  
봤더니 일이 밀리고 저에 대한 금융조사가 덜  
끝났다고, 다 끝나면 전화 드리고 방문하겠다  
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  
런데 2주 정도 후에 구청에서 방문했습니다.  
구청 직원 2명이 와서, 형의 주소가 어디로 돼  
있냐고 물어서 우리 집 주소로 돼 있다고 이야  
기를 했고, 어디가 아프냐고 해서 제 병들과  
증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청 직원과 또 이  
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3월 초에 결론이 난다  
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하더니,

제가 신경과 병원 갔다 오고 1주일 뒤인가 구  
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해야 할 말인  
것 같은데 어머니를 바꾸라고 하시더니, 형이  
부모님 집으로 주소가 돼 있어 안 된다고 하더  
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안 되냐고 구  
청 직원한테 물어 봤습니다. 친형 주소를 옮  
기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구청에선 일단 알아  
본다고 다음에 전화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서 바로 형한테 전화해서 주소를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나갔다 온 뒤 구청  
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형이 돈 벌고 아버지도  
소득이 있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건 저처럼 수급자 상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이렇게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  
다. 또한 저는 몸이 불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저에게  
수급을 탈락시켰습니다. 무슨 법이 이따위입  
니까! 개만도 못한 이런 게 법이라면 당장 폐  
지되어야 합니다.

【노들아 안녕 1】

# ‘노들에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이형숙

안녕하세요. 3월부터 노들센  
터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형숙  
이에요. 그동안 경기도에서 활  
동하면서 노들 식구들은 자주  
만난 것 같아요. 노들활동이 익  
숙한 듯 빠른 전혀 익숙하지 않  
은 서울 혜화동 출퇴근을 시작  
했어요.

똑딱똑딱똑딱!! 하루가 바쁘  
고 빠르게 흘러가네요. 이미 짜  
맞춰진 틀 속의 세상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노들에서 활  
동한다는 것은 설레기도 하고  
격정도 많아요. 혹시나 노들에

페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한심한  
생각도 있고, 무엇인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매우 있어요.  
아주 쓸모없는 잡념이지만, 노  
들의 무게감은 보이지 않는 스  
스로의 속박이지요.

장애 때문에 비참할 필요도  
비장애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  
도 되는 또 하나의 사회, 다양  
한 삶이 섞여서 시끌벅적한 노  
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넘치거나 부족해도 서로를  
보듬으며 인정할 수 있는, 특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소외

되지 않는 사람 사는 노들에서  
활동가가 되고 싶어요. 고민과  
활동을 함께 나누어서 노들인  
과 함께 밑불과 불씨를 꾸준히  
살리고 싶네요.

지금도 어디선가 똑딱똑딱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  
고 있을 노들 활동가예요. ^^

\* 추경진, 조은별, 요지 님의 글은 3월 3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이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노들아 안녕 2】

# 저는 신입이지만 신입이 아닌 신입입니다~^^



김상희

새로운 활동가 소개하는 코너에 제 소개를 하려니 쑥스럽고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

사실 저는 노들과 인연이 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01년에 검정고시 공부 목적으로 노들야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언덕으로 유명한 동네에 계단만 있는 3층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일상생활도, 이동도 할 수 없어서 야학에 등, 하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노들야학은 저희 집과 거리가 상당히 먼 곳에 위치

해 있어서 정말 열악한 조건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다녀봅시다!!” 이 한마디를 제게 해주셔서 야학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교사하셨던 분들은 저희 집에 거의 한 번씩은 오셔서 저의 이동을 지원해 주셨을 겁니다.

노들과의 인연이 시작된 후부터 저의 삶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로 인해 지금까지 제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들로 인해 시작된 삶의 변화들이 일상으로 일

구어져서 이제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대학로를 매일 오가며 21살 때 처음 노들야학을 다녔던 그 시절을 가끔씩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제 삶이 변한 것처럼 노들에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이 모두 각자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노들센터에서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이어야겠죠? ^^;;

【노들아 안녕 3】

#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정소영

안녕하세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사업팀 신입활동가 정소영입니다.

저는 작년에 노들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하고 2017년 1월부터 센터 판에 상근활동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노들식구들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막상 글을 쓰려 하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평소에 장애인 인권에 관심은 많았지만 소극적인 성격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종종 장애인 인턴제로 노들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인턴제를 마치고 센터판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집이 성남이라서 여전히 장거리 출, 퇴근이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아직 배우는 단계라 부족한 점이 많고, 투쟁이 무섭지만;; 열심히 배워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 노란들판~ 인스타그램 @

#신입직원 #노란들판의 핫플레이스, 자몽청!  
#세계여성의 날 유공기업 선정 #420장애인권위원회 #블로그

올해! 노란들판에  
신입직원이 3명이나 왔어요!  
입사 순으로? ≡



#안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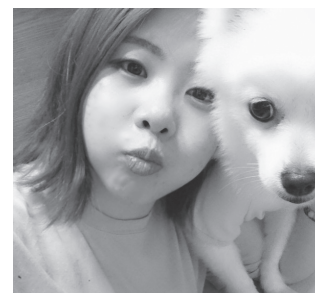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노란들판에서 회계 담당으로 함께하게 된 안연주입니다.

자기소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을 써보려 합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아직 해외여행은 가본 적 없지만.. 올해에는 꼭 해외를 가보고 싶어요! 평소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풍경 보고, 밤에 별 보는 것을 좋아해요. 고궁이나 문화재 보러 가는 것도..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것을 좋아해요. 여행과 고기가 함께 있는!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우쿨렐레를 배우기로 했어요. 열심히 배워서 우쿨렐레만큼은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평소엔 관심도 없었지만, 요즘 절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배드민턴이에요. 점심시간에 삼삼오오 모여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첫날에는 세상 못 치는 제가 너무 웃겨서 배가 아플 정도로 웃음이 나왔어요. 요즘은 첫

날보다 많이 발전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덕분에 함께 치는 분들과 더 친해진 느낌 들어요. 처음 어색했던 순간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노란들판에서 함께한 지 3개월이 지났네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하던 날, 밝게 웃으며 반겨주신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항상 웃으며 알려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단 말씀을 전합니다. 노란들판에서 멋진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많이 행복합니다. 저도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진실로

안녕하세요 저는 노란들판 공장 편집디자인팀 디자이너 진실로입니다.

나이는..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너무너무 많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너무 많은 그런 나이입니다.(비공개)^^;

공장에는 2017년 1월에 입사했어요. 이곳에 와서 노란들판을

처음 알게 되었고, 3개월 차라 약간의 어색함과 모르는 것들이 있지만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전에 다니던 디자인회사들과는 다르지만 안 해봤던 분야의 디자인 일들을 하게 돼서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애인 관련해서도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이 찾아보고 알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노란들판은 다 같이 함께하는 일터라서 이 공동체 속에서 많이 배우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다육이에 꽃혀서 미니 화분을 만들어 키우고 있어요. 꽃이나 식물을 좋아하고, 날씨 좋은 날 돛자리 펴고 광합성하기, 드라이브, 전시회나 공연관람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며 엑세서리 만드는 취미도 있고 평소에는 우리 한 입이(세젤에 강아지) 산책시키기, 음악 들으며 걷기, 북카페 가기, 조카들과 놀기 등 소소한 일상을 보내요. 음식은 다 잘 먹고 특히 시원한 맥주, 아이스크림, 커피, 냉면 등 차가운 음식을 좋아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뭐든 즐거운 유쾌한 사람이에요. 친해지면 개방정도 떨고 웃음이 헤프고 혼잣말도 잘하고 이래저래 소심한 면도 있고 걱정도 많지만 그래도 관계에 있어서 매사에 언제나 거짓 없고 꾸밈없이 솔직하게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



#조상필

안녕하세요. 상필입니다.

“노란들판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재미있게 살

아가고 싶어요.”라며~ 노들공장에 입사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노들공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없을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 #첫 만남

6호선 돌곶이역 5번 출구, 5분 정도 걸어서 노들공장에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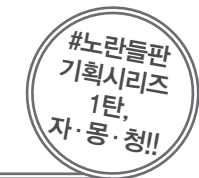
문을 들어서자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봉팀장님이 보여 반가운 마

음에 인사를 건넸지요.

상필 : 안녕하세요. ^o^  
봉팀장 : (걱정스런 표정으로) 아휴... 어찌려고 여길...  
상필 : ...

### #면접

면접은 생각보다 험난한 시간이었지요. 많은 질문이 있었고, 역시나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



여주어야지.  
**상필** : 제가 노들공장에 입사하게 되면 폐 끼치지 않고 한 사람의 몫은 다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입니다.

**면접관** : 안 돼요. 우리는 상필 씨가 세 사람, 네 사람의 몫을 다해내길 바랍니다.

**상필** : ...

**#디자인팀 신입직원이란? 1**  
 노들공장 사람들의 가르침과 도움에 힘입어 디자인팀 업무를 하나씩 배워갑니다.

이번 업무는 주문이 들어온 현수막 실제 제작. 정팀장님이 A안을 만들고 난 서둘러 B안을 만들어 보았지요. 메일로 고객님의 시안을 보내고 얼마 지나서...

**사무팀** : 상필 씨 시안 한 번에 통과되었네요~ 고객님의 밝고 화사한 느낌에 너무 좋다고 전화가 왔어요.

**상필** : 아, 감사합니다. 어떤 시안이...  
**사무팀** : 하하하 A안이에요. 너무 이쁘대요~  
**상필** : ... (A안은 정팀장님이 만들었...)

**#디자인팀 신입직원이란? 2**  
 애정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서 들어온 주문을 담당하게 되다니~ 뭔가 의욕이 넘치는데~!!! 멋지게 만들어 봐야지~ 현수막 2장, 족자봉 현수막 8장, 깃발 다수. 긴 시간 만든 시안을 전 장면에 보내고~

**사무팀** : 상필 메일 확인하세요~  
**전장연 회신 메일** : 상처받지 말고 들어... 전면 수정이야...  
**상필** : ... π\_π

**#하루의 마무리는 역시**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다들 하루 동안 작업하던 주문들을 마감하

고~ 하루의 마무리는 역시 여유롭게 맺음을 하는 이 분위기~ 끝나고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 흐뭇함. 전화가 울리고...

**사무팀** : 네네, 블라블라 와글와글,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사무팀** : 내일까지 현수막 100장이요~!!!

**상필** : ...

노들공장에 나오기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벌써 얼마나 흥미진진! 재미 넘침! 예측불가!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되는 한 달이었네요~

노들공장 사람들은 뭐든지 똑똑똑 잘해내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일도. 함께하는 일도.

노들공장은 역시 좋은 곳이었습시다. 노들공장을 많이 찾아주세요~

내 “자몽청”은 어디에?  
 『노들바람』에 앞으로 어떤 글을 실으면 좋을까 하다가 나온 기획시리즈 1탄!

**내 “자몽청”은 어디에?**  
 (자유와 몽상을 청하다)

**Q. 노들공장을 소개합니다. 노들공장은 말이에요. 어떤 곳인가 하면... 막상 설명하려니 어렵군요. 그래서 노들공장 식구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노들공장 식구 여러분!!! 이곳은 당신에게 어떤 곳인가???**

**A. 먼저 노들 공장의 구석구석 이곳저곳 여기저기 오가는 중에 자신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바쁜 일상 가운데 나에게 잠시라도 자유로움을 주는 곳, 에피소드가 있는 장소, 애착이 가는 곳 등등 특별한 장소를 묻는 설문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장소들을 많이 답해주셨어요. 그중에서도 베스트 장소와 왜 그 장소를 뽑으셨는지 소개해드릴게요~ㅎ (더 많은 장소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식당 (회의실)**

• **아직은 막내(혹은 여전히 막내) > 식당**  
 계속 앉아 있는 자리를 벗어나 폰 게임도 하고 잡담도 나눌 수 있는 공간. (feat. 주전부리)

• **고수 > 식당**  
 (하늘이 이쁘다고 연락을 주시다니요) 바쁜 일상 가운데 커피 한 잔, 당 충전을 위해 발걸음을 하게 되는 식당. 높은 건물이 많지

않은 석관동이기에 창문이 큰 식당에 가면 트여 있는 하늘이 보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소복 내리거나 하늘이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는 걸 보는 날이면 여행을 떠나는 날처럼 마음이 설레어요.

• **봉탕잠 > 해바라기 존 (식당(회의실) 창가)**  
 일과 중 해를 쬐 수 있는 유일한 곳. 점심 후 나른하게 햇살과 커

피를 마시며 광고 흥내도 내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피곤한 날엔 테이블에 엎드려 쪽잠도 자고







2

옥상

• 실롱 > 노들 루프탑(rooftop)  
(우리 건물 6층~ 사람 옥상 말고  
진짜 건물 옥상~)

아직도 돌곶이역, 석계역은 낯설  
어 길이 어딘지 어디에 뭐가 있는  
지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가본  
곳은 이디야 카페인데... 특별  
한 장소는 아니라서, 우리 건물,  
한우리빌딩의 6층을 추천합니다!  
사실 저도 박팀장님께서 알려주  
신 곳이라 알게 되었어요. ㅎㅎ  
입구는 외부인 출입금지 공간 같  
지만 딱! 들어가면 돌곶이 부근  
장위동의 모든 곳이 한 눈에 다  
보이는 탁 트인 시원한 곳이라니



다~ 저는 종종 올라가서 바람도  
쐬고 사색? 나름 몽상을 즐기며  
사진도 찍고 머리도 식혀요. ^^;  
커피 한 잔 타서 가지고 올라가  
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봄도 오고 좀 따뜻해지면  
돛자리도 챙겨서 일광욕을 즐기  
려구요 하하..

• 시백 > 옥상(그 옥상 말고)  
그 곳에 가면 맘껏 소리칠 수 있  
다. (아직 그래본 적 없음)  
그 곳에 가면 힘껏 휘두를 수 있  
다. 그 곳에서 마시면 어떤 차도  
맛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더라  
도 사방의 풍경들이 이해해 준  
다. 그 곳에도 화장실이 있다.

3

배드민턴장

• 안주 > 배드민턴 장(노란들판  
사무실 건물 옆 어느 주차장)

점심시간에 배드민턴을 치기 시  
작했어요. 세상 못 치는 내 모습  
이 너무 웃겨서, 배드민턴을 치는  
데 배가 제일 아파요.(너무 웃어  
서...) 다른 동료들과 더욱 친해진  
느낌도 들고, 서로의 새로운 모습

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아요!

• 주훈 > 회사 건물 뒤편 공터  
(배드민턴 장)

혹독한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아  
가는 30대 가장의 나에게, 하루  
의 반 정도를 보내는 회사 속 나  
에게, 점심 식사 후 잠깐의 운동



이 복잡한 대한민국의 삶에 희노  
애락 中 '희'를 느끼게 해주는 공  
간 겸 시간. (\* 멤버모집 中)

세계 여성의 날  
유공기업에 선정되다!

노란들판이 2017년 세계 여성의 날  
을 맞아 유공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란, 1908년 3월  
8일 미국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여  
성들의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 보  
장의 10시간 노동 보장, 임금 인상  
등의 권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1975년 유엔이 국제  
기념일로 제정한 날입니다.  
노란들판이 위치한 성북구에서 세  
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는  
데요. 노란들판은 여성의 적극적인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기업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기념행사와 달리 이번 기념  
행사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있었는데요. 2부는 여성 영화 상  
영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종  
분'과 '영애'의 우정 이야기를 다룬  
<눈길>을 상영했고, 부대행사로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홍보 캠페  
인, 성매매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



행했습니다. 노란들판에서는 나해  
니 팀장님께서 대표로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유공기업에 선정  
된 계기로 노란들판에서는 남녀차  
별 문제, 여성 문제 등은 없는지 돌  
아보게 되었습니다!

(3월 31일, 여직원DAY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여성위원회를 주축으로 여성인권 관련  
책 읽기 모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노란들판도 장애인권위원 인증샷을 찍  
어보았어요! (분홍색 옷 입으신 분이 이번 420장애인권위원 선전물을 디자인한 '진  
실로' 님!) 이렇게~벽에 붙여보았는데, 예쁘네요~!!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norandp9101>

노란들판의 일상을 기록하고, 홈페이지보다 쉽게 고객과 소통하고자 블로  
그를 개설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별 내용은 없지만...^^ 나날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기대하며, 열심히 기록하겠습니다. 많이 놀러 와주세요~^^

# 들판을 헤매다 차 한 잔 마시자고, 소박한 꿈, 큰 노동... 들다방 탄생기

김유미

요즘은 내가 뭐하는 사람일까, 스스로 묻고 답하지 못할 때가 있다. 야학에서 회의를 하다가 커피를 만들고 데모하러 갔다가 출석을 부른다. 노들야학에서 별 거 다 가르쳐줘서 ... 고맙게 생각한다.



노들야학에 4층이 생겼다. 덩치 큰 전동휠체어, 휠체어에 탄 사람과 활동보조인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고, 탈시설한 분들이 '관문'을 통과하듯 야학에 입학하면서, 야학이 점점 좁아져갔다. 지난 몇 년 교육청과 시청을 번갈아가며 찾아가 우리 사정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 결과, 야학은 4층을 얻게 되었다. 야학 학생, 교사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대강의실과 교실을 만들고 바닥에 물을 뿜듯 쏟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급식 주방을 만들고...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하다 카페가 생각났다.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이 두 단어가 마치 한 세트처럼 장애인노동 영역을 떠다니고 있었다. 월화수목금, 때로는 나보다 더 일찍 등교해 야학에서 하루를 보내는 야학 학생들이 있었다. 우리도 바리스타 교육, 카페 운영...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4층 한 구석에 카페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4층 공간 공사를 하면서, 식당 뒤 옆 구리에 작업 테이블과 개수대를 설치했다. 그리고 몇 달간 방치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니 그라인더니 하는 것들은 무지 비쌌다. 살 수가 없었다. 작업대 위에 온 동네 집이 쌓여갔다.

교장샘은 공간이 노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지, 여기 저기 찾아다니시더니 어느날 공적자금을 구해오셨다. 내 눈에 어마어마한 돈이, 카페를 차리라고, 어느날 푹 떨어졌다. 그것이 지난 늦가을의 일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에스프레소 머신 가격을 알아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했지만, 뭔가 잘 모르겠고, 어려웠다. 야학의 오랜 친구인 통인동 00공방 사장님께 상담 전화 한 통 한 뒤로,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그냥 카페요. 우리 사람들이 주로 오고, 또 오

고 싶은 사람 있으면 와도 되고. 야학 학생들이 일을 같이 하면 좋고... 할 수 있으면요." 이 정도의 희망사항을 전하자, 카페의 목표, 주요 고객, 유동 인구 등등을 파악하라고, 아니면 어차피 망할 테니 시작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셨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카페들이 문을 닫고 있다 했다. 음..... 냉정한 조언 속에 조금씩 정신을 차려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어리벙벙한 상태로 카페 세팅을 해나갔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정하고 얼음 낡는(와서 보면 낡는다는 표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기계도 들고 정수기, 그라인더도 샀다. 학생들과 함께 실습할 요량으로 핸드드립 세트도 여러 개 사고, 카페의 꼴을 갖춰갔다.

하지만 기계만 있으면 뭐하나. ... 커피00에서는 숙련된 바리스타 유하 님을 연결해주었다. 유하 님은 커피00방, 파000 등에서 여러 해 바리스

월화수목금, 때로는 나보다 더 일찍 등교해 야학에서 하루를 보내는 야학 학생들이 있었다. 우리도 바리스타 교육, 카페 운영...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타로 일한 분이었는데, 마침 일을 정리하고 다음 삶을 준비 중이었다. 고 틈새를 타, 우리는 유하님을 야학으로 불러들였다. 열흘 넘는 시간동안 유하님은 나와 누리에게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 음료 만드는 법, 주문받고 음료 만드는 노하우에 청소까지 카페 운영 전반에 대해 가르쳐주었다. 하트.

그렇게 커피공방과 유하님의 공덕으로, 노들의 카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커피공방 박00 대표님은 나를 신당동 중고 시장에 데려가 중고 물품을 '눈탱이 맞지 않고' 살 수 있는 법까지 교육 해주었다. 의자와 쇼파도 구해주고, 인테리어 조언도 해주어 '군대 급식장' 같던 공간이 :: '카페'로 탈바꿈해갔다. 그렇게 하나둘씩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하루 4시간씩 시범 영업을 했더랬다. 영업한다는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오전 일찍 오거나 저녁 늦게 와서는 커피를 달라고 하고, 왜 문을 열지 않느냐고 타박하고, ... 그리하여 들다방 영업시간은 아침 10시부터 7시반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 이름 들다방

'노들카페'라는 간편한 가칭으로 움직이던 우리는 이름을 짓기로 했다. 노들 전체 상근자들과 야학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어, '뽕리카노', '노들리카노'가 될 뻔하다가, '들다방'이 되었다. "까페 이름 이거 어때? 들다방 들밥상... 까페 '들'. 들판의 들이기도 하고 복수의 의미 들 multi" 박정수 쌤의 제안에, 박경석 고장쌤은 여기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까페라는 이름 대신 다방을 밀었다. 중간 글자를 한자로, 많을 多 자로 쓰자고 했다. 그렇게 이 공간은 전통 찻집 같기도 한, 들다방이라는 이름을 달고 꿈틀거리게 되었다.

카페가 급식 주방 옆구리에 붙어 있고, 까페에 카드결제기와 포스기를 설치하고, 들다방은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어느새 이 공간을 가운데 놓고 여러 사람이 여러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들다방은 야학의 먹거리 배급소처럼 되어 버렸다. 급식도 까페도 다 들다방 이름으로 묶였다. 그리고 그 사업장의 대표를 어찌

다 내가 맡게 되었다. 빗더미 급식 텅장이 왜 때문에 내 앞으로... 까페 노동자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데, 노들에서 별 거 다 해본다. 설거지하다가 회의를 진행하고, 밥을 먹다가 녹차라떼를 만드는, 아직은 약간 체기 있는 일상에서 살고 있다.

노들의 이름, 노란들판에서 들판이라는 단어를 떼어놓고 되뇌어보면, 자유로운 마음이 들면서도 아린 감각이 몰려온다. 허허 벌판 같을 들판을 노랑게 가꾸려고 하는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마음이 더 그렇다. 나는 종종 노란들판이라는 단어와 함께 바람도 막 불고 아무것도 없이 거칠기만 한 벌판을 맨손으로 가꿔야 하는 농부의 상태를 떠올리곤 한다. 막막하고, 딱딱하다. 도시의 시커먼 아스팔트 위에서 마찬가지 경험을 해왔다.

민을 거라곤, 기뻐 데라곤 거친 땅뽕. 언젠가 텃밭농사 짓는다고 나돌아 다닐 때, 누군가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농부는 땅을 닦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분양받은 땅이 너무나 거칠어서 푸

넘했더니 돌아온 말이었다. 땅은 그저 땅일 뿐이고, 그걸 가꾸는 건 농부 몫, 나의 몫. 들판을 생각하니 김소연의 시, '여행자'도 떠오른다. "아무도 살지 않던 땅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 / 살 수 없는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된 사람이 있었다 / 집을 짓고 창을 내고 비둘기를 키우던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땅을 받아들인 사람, 그 땅의 농부가 된 사람은 어느 순간 그 땅을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이 되어있을 것이다. "그 창문으로 나는 지금 바깥을 내다본다 / 이토록 난해한 지형을 가장 쉽게 이해한 사람이 / 가장 오래 서 있었을 자리에 서서" 들판에 취해, 이야기가 옆으로 길게 섰다. 내가 가꿔야 할 들판에 다른 농부가 있다면, 동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무지 고마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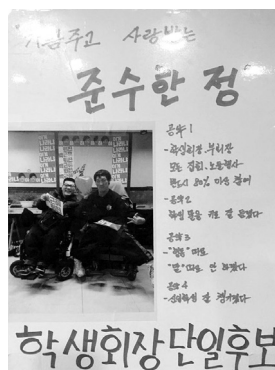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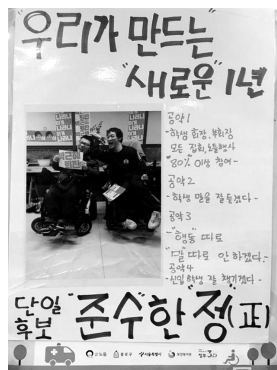
조만간 들다방에서 일할 후보자들과 면접 자리가 있다. 모두 '발달장애인'이라는 이름표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직무지도원, '잡코치'도 지원해준다고 한다.

야학 학생들과 함께 카페에서 쿠키를 굽고 커피를 내려마시면 좋겠다 정도의 소박한 꿈. 지금은 곱게 갈은 원두에 첫 물을 부은 것처럼, 빵~ 부풀어 있다. 소박한 꿈이 또 다시 커다란 활동으로, 나의 커다란 노동으로 (...) 부풀어 있다. 두 번째 물을 부으면, 흠뻑 젖은 원두를 통과한 첫 커피물이 내려올 것이다. 이번 잔은 맛이 어떨지. 적어도 들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만큼은 당신에게 지금이 '노란' 들판 같으면 좋겠다. 이걸 내 두 번째, 소박한 꿈이다.

# 2017 안전벨트 학생회장 김이준수 당선 의 변

김이준수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몸무게 1.2kg 미숙아로. 그때부터 장애인으로 살아온 30년. 전 학교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그때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특수학교에선 저를 받아주지 않아 실망도 했어요. ㅠㅠ 지금은 노들야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들야학 학생 김이준수입니다. 야학을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학생회장이 되고 싶다.' 저는 2017년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많은 책임감이 듭니다. 학생 여러분에게 실망 주지 않고 기쁨 주고 사랑 받는 총학생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여러분과 함께라면 전 자신 있습니다. 부회장 허정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투쟁을 하면서 편안한 느낌이 되도록 여러분의 안전벨트가 되겠습니다.

【교단일기】

# 하마무가 하마무에게 인터뷰를 한다

물어보는 사람 : 하마무  
대답하는 사람 : 하마무

하마무

노는 사람. 페미니즘 아트의 실천 가능성을 모색 중.

하마무, 안녕하세요? 우선 노들과 어떻게 만났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들은 2011년 노동절이었던 거 같아요. 노들의 시위대는 대열의 최후미에 있었어요. 모두가 다 같은 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조금씩 노들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미술반을 담당하게 되었나요?

작년 겨울이었나...? 그때 미술반을 담당했던 맥주쌤이 갑자기 유학 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원래 맥주쌤은 친구여서 같이

여성주의 예술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길지 않지만 미술반을 담당하게 되었죠.

미술반을 담당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있었나요?

음... 늘 재미있죠. 기본적으로 학생분들은 자신의 스타일이 있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고집 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은 자신의 얼굴을 그립시다" 뭐 자화상을 그리자는 수업인데요. 자기는 못 그리겠다, 그림 그리기 싫다, 딱 것 그리겠다, 등등 다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좀 다양해요. 거

기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은 억지로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교육이었어요. 하늘을 그릴 때 핑크색으로 그리면 안 되고 하늘은 하늘색으로 그리라는 교육이었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들 학생들한테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요, 뭐가 재미 있냐면요. 자화상 수업 때 어떤 학생이 자기는 찬미를 좋아한다고 찬미를 그리겠다고 계속 핸드폰 사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보다는 좀 늦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찬미 그림을 그





렸고요. 아, 저희는 수업 끝나기 전에 그날 했던 작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그 학생이 찬미 속에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그랬지만 여기 뒤에 자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멋지고 재미있는 학생들에게 나도 배움을 얻고 있다고 느끼죠.

또 학생들과 미술관에 갔는데, 그때도, 아 이걸 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학생들 중에 살면서 처음으로 미술관에 왔다는 학생도 계셨고 이야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웃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 학생들의 자유로움을 보면서 웃었어요. 학생들은 재미없다고 이런 그림을 자기도 그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시를 보면서 못 그린다고. 정말 웃겼어요. 사람

들은 비싼 미술관에서 깨끗하게 전시 되어있는 그림을 조용히 보면서 “음~ 이 그림은 이런 부분이 모더니즘이 어찌고...” 이렇게 보는 옆에서 시끄럽게 “못그린다, 내가 더 잘 한다” 이러니까 분위기가... 정말 웃기죠. 행위 예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죠. 그 공간 자체가 기존의 권의주의적인 미술제도에 혼란을 일으키는 순간이었다!,,고 하면 혼나겠죠. 아무튼 저는 미술이 그렇게 고급스럽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속에서 모든 것이 상품화 돼버렸지만, 예술도 그 속에서 저항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신이 원하는 예술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예술도, 장애인도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없다고, 노동력이 없다고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고 생각해요. (이 이유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오히려 저는 그 쓸데없는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우리는 모두가 예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미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쓸데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 같아요.

**미술반을 하면서 힘든 것이 있나요?**

음...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사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요. 장애인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늘 느끼죠. 비장애인들이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 못 해왔다는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결혼이라든가 이성 간 연애,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을 표출하는 장면이 자주 만나요. 그런데 그런 성적 욕망을 포함한 욕망의 표출을 대부분 남성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란 해도 남성의 성욕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들은 남성 중심 사회가 만들어낸 스테레오타입이고 모든 여성들의 성적 욕망을 없애 버리고 여성을 억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같은 장애인이지만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간에 차이점, 또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 간에 생긴 권력관계 등등 고민하는 부분은 정말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고민을 해 나가는 것인 거 같아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

# 나에게 노들은 편안함이다 노들을 추억하며



박소영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신태리지 활동가로 근무 중

사회복지 실습처를 찾아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실습할 곳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마음 가는 곳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노들이었다. 아마도 이웃동네인 제기동에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유치로 지역갈등이 생겼을 때, 사회구성원으로서 찬성해달라는 호소문을 가족과 함께 붙이고 다닌 후로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락과 시간이 여의치 않아 망설이기도 했지만 다시 노들에 전화를 드렸을 때 흔쾌히 받아주셔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실습을 시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실습비가 없다는 말씀에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왔다.

노들의 첫인상은 낯선 듯하면서도 편안함이 있었다. 누구도 먼저 다가오진 않았지만 내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실습생을 담당하셨던 한혜선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셨고 자율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 그래서 말리는 사람도 시키는 사람도 없는 자기주도적인 즐겁고 자유분방한 실습을 하게 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실습을 나갔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때 마침 노들 학생인 수연 씨의 활동보조를 부탁받았다. 수연 씨는 내게 고마운 존재다. 나를 청솔1반으로 인도해 주었고 그녀를 통해 좀 더 빨리 야학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일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남아 있다. 그 중 하나가 수연 씨를 보조할 때 지민형님의 태

이러한 인식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함께 섞여 살면서  
부딪히고 자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제도가 필요하다.

도다. 처음 보는 내가 미덥지 않았던지 수연 씨에게 뭔가 하려고 하  
면 지민형님이 먼저 해버리는 모습이 나를 경계하면서 그녀를 지키  
는 것 같아 삼각관계에 빠진 기분이 들었었다. 지민형님과 당구를  
치며 친해진 다음에 왜 수연 씨에게 잘해 주느냐고 물어보니 "아버  
지가 좋아서"라는 답변을 들었다. 마음 좋은 수연 씨의 아버지, 어  
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분들인 것 같았다. 또 하나는 정리  
맨을 자처하는 주원형님만 들어오면 늘 한 학생이 "나가~" 하고 소  
리침과 동시에 모두가 "나가!"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화  
를 내지 않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다 가버리는 주원형님  
의 시크함은 지금도 미소를 짓게 한다.

그리고 여러 수업을 참관 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인내심에 경의  
를 표할 수밖에 없었으며 맞춤형 철학수업과 연극수업, 방송반 수  
업은 정말 훌륭했다.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교육이 크게 발전할 텐데 말이다. 학부모로서 수업에 완전  
히 반해버렸다. 이러한 반함은 애정이 가장 많이 가며 가장 기초반  
인 청솔1반의 보조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  
록 하였다. 그래서 야학의 허락을 받아 인근 학교에 다니는 딸에게  
권하여 친구들과 함께 보조교사로 노들과 인연을 맺게 하였다. 지  
금은 딸의 후배들이 노들에 가고 있고 딸은 교사가 되기 위해 과정  
을 밟는 중이다.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와 다르다. 그 다름 중에 장애인  
도 포함될 뿐인데 특별히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  
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이 변화  
되려면 우리가 함께 섞여 살면서 부딪히고 자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  
회제도가 필요하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며  
노들이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  
지를 함께 외치고 싶다.

【자립 생활을 알려주마】

# 꿈도 꿈지 못했을 지금, 자유

장희영

시설에서 나와 장애인문화예술관에서 연극배우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며 인권강사와  
동료상담가로 열심히 살고 있다. 요즘은 그동안 책꽂이에  
장식용으로 꽂아두었던 책을 하나씩 읽고 있는 중이다.  
(가끔 즐기기도 하고 책 한 장 넘기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터벅터벅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는 우리 경남언니 발소리다. 현관 버튼 키를 쿡쿡  
누르는 소리와 함께 베리릭 문이 열리고 현관 안  
으로 들어와서는 잘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듯 크  
게 웃는다.

지금은 밤 9시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다. 경  
남언니는 6년째 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게다가 반에서 열성적으로 반장 역할  
을 수행 중이라 한다. (멋져 부러) 나에게도 반장  
님이라고 꼬박 꼬박 불러 달라고 한다.

반장님의 위치는 책임감이 막중하다고는 하지  
만 이렇게 365일 결석 한 번 안 하는 반장님도 드  
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룸메이트 커플이다. 요양원에서 만나  
지금까지 19년째 인연을 맺고 있다. 지역사회로  
나온 지, 2년 만에 국민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어  
서울에서 공기 좋기로 유명한 길음 뉴타운에 입

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설 밖으로 나올 때 걱정  
됐던 집 문제가 말끔히 해결 되었다. 길음역에서  
집으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멀게 느껴지곤 하지만  
그나마 다른 곳에 비하면 교통편이 좋아 경남언  
니가 야학에 다니기엔 안성맞춤인 것 같다. 시설  
에 살고 있다면 이렇게 밤늦게까지 마음껏 다닌  
다는 건 꿈도 못 꿀 텐데...그리고 친구들도 사귀  
고 밤늦게까지 tv도 시청하고 늦잠도 자고 언제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으니, 그야말로 땡 잡았다  
고 할 수 있다.

시설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지금은 마  
음만 먹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  
고 감사한 마음이다.

과거에 우리처럼 지금도 시설에서 자유를 그리  
며 살아가는 분들이 모두 지역사회로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 노동에 관하여, 풀리지 않는 질문

나경

활동보조 5년 차.

현재 이용자로 만났던 J와 함께 다큐를 제작 중이다.



얼마 전, 친구 J와 다큐멘터리 <플레이 온>을 보러 갔다. 영화는 SK 브로드밴드 케이블 하청 노동자들이 팟캐스트를 통해 파업 소식을 알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담았다. 영화 속 노동자들은 단단한 안전장치 없이 전봇대나 담 위에 오르는 위험을 감수했고, 언제나 좋은 인상을 주어 고객들에게 서비스 점수를 따야만 했으며,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들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노동의 조건은 열악했고, 그것을 바꾸어 내는 파업은 녹록치 않아 보였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투쟁을 통해 하청업체의 정규직이 되었지만, 그 여파로 일이 줄어들어 월급은 오히려 반 토막이 되었다.

사실, 나나 J는 영화를 보기 전까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영화도 지인이 만든 게 아니었다면 굳이 찾아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평소 노동운동이나 노조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J와 나에겐 ‘노동자’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J는 9년째 장애를 주제로 인권강의를 하는 강사지만 그것이 생활

을 뒷받침해줄 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나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면서 4대 보험을 보장받고는 있지만, 알바 혹은 활동으로 여겼을 뿐, 그것을 진지하게 ‘나의 노동’으로 대하고 고민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우리는 노동운동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영화 속 노동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어려웠다.

영화가 끝나고 J가 내게 말했다. “이 일이... 힘든 건 알겠는데...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거고... 하지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 더 못 있어. 일하면서 좋은 건 없나?” 이 같은 J의 반응은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다소간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영화 속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나온 질문이라기보다는 평소 일하면서 느꼈던 그녀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J가 인권강의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은 비장애인이 다수인 학생들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자, 장애에 대해 비장애인들이 가

진 편견을 교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얼핏 그 일은 꼭 필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실제 강의를 준비하는 J에게는 즐거움보다 현장에 대한 걱정이나 피곤함이 앞선다. 게다가 들인 노고에 비해 수입이 시원찮을 때, 일이 항상 들어오는 것도 아니므로 그것을 선뜻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애매한 것이다.

생계와는 상관없는 강사 일, 그것을 J는 ‘노동’의 관점에서 고민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의 관점이란 뭘까? 생계를 책임질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야만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 노동은 즐거움과 동떨어져있는 개념일까? 어떤 노동에도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J는 이 같은 고민을 영화관에서 감독과 출연자들과 나누고 싶어 했다. 언어 장애가 있는 J가 그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입말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대신 질문했다. 하지만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순간 난감했다. 아니, 그 자리

에서 나는 J와 내가 처한 노동의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맥락은 생략한 채 몽뚱그려서 이야기를 했다.

“영화 잘 봤다. 제가 친구를 대신해서 질문을 전달하겠다. SK 브로드밴드 기사님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어 좋았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노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다. 노동자의 노동의 조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다큐에서는 힘든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주로 나왔다. 하지만 궁금해졌다. 일을 하시면서 진짜 어떠셨는지, 돈을 번다는 의미 외에 일 자체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자부심. 그런 것은 없는지 궁금하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이크를 받은 출연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인 그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노동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희망연대노조에 속해 있는 또 다른 노동자는 노조일을 권익을 주장하는 것 이상의 이웃과의 연대활동을 포

J는 노동자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소를  
영화에서 보고  
싶었다고 했다.



함하고 있다고 했다. 뭔가 질문과 답의 핀트가  
어긋나있는 것 같았지만, 둔탁한 질문에 대한 최  
선의 답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  
오고도 뭔가 갈증이 해소되진 않았다.

분명 영화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좀 더 친  
근하게 다가오긴 했다. 노동운동을 다룬 다른 영  
화들과는 달리 노동자들은 수다를 떨었으며, 부  
드러운 표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에 관  
하여는 계속 물음표가 생겼던 것이다. 왜 우리는  
그들의 노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까? J는  
노동자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소를  
영화에서 보고 싶었다고 했다. 일은 누가 시켜  
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이란 평소 J의 지론을 비춰보면, 그 반응은 충분  
히 납득이 갔다. 하지만 과연 결사 투쟁을 벌이  
는 노동자들에게 웃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합  
당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나는 질문을 나에게 가져와보았다. 돈과 노동  
은 동떨어진 것일 수 있는가? 일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나는 지금 이 질문들에 대해  
뚜렷하게 답을 할 수 없음을 안다. 아마 그동안  
이 일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동안 인문학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  
던 내게 일은 어디까지나 생활비를 벌기 위한 보  
조적 수단이었다. 활동보조 일을 시작한 지 벌써  
4년, 얼마 전 공동체 생활을 접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에 대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다. 사실, 내가 처  
한 상황을 언어화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마  
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나의 행동과 노동조건을  
투명하게 이해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다. 어쩌면 그동안 일은 고역이거나 타협이었  
는지도 모른다.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앞으로  
난 어떤 고민들을, 누구와 나눠야만 하는 걸까?  
친구와 함께 영화 한 편을 보고 생각만 많아져  
버렸다. ㅎ

【대학로야 놀자】

## 세상의 중심은 나와 너라는 것

≡ 허 정

학생부회장이자 권익옹호 활동가 허정입니다. 노들에서 바라는 꿈, 나는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신입 학생들과 신입 교사하고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배우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적은 꿈은 일본에 가서 애니를 배우고 싶습니다.



대학로에는 '서쉐프'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경사로를 만들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경사로 설치를 제안했을 때,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끈질기게 말하고 요구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쉐프에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턱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끝없이 말하고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턱이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턱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





# 15회 정태수상 수상자 김명학 동지!

≡ 박승하

장애해방열사\_단에서 활동합니다.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에서는 매년 3월을 여는 첫 행사로 3월 1일 정태수 열사의 추모제를 치르고, 정태수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15년째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열사의 삶과 송고한 정신을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이어받아 활동한 동지에게 수여한다. 선명성, 투쟁성, 조직적 운동성, 활동지속성, 장애인운동에서의 공적, 총 5가지의 기본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10여 명의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장애해방열사\_단의 박김영희 대표가 1회 정태수상 수상자로 선정되고 15년이 지난 지금, 10명의 개인과 5개의 단체(10회 시상식에서는 두 단체가 수상함)가 정태수상을 수상했다.

모두들 알겠지만, 정태수상 15회 수상자인 명학이형의 작년 활동을 가만히 되뇌어 보면 참 다양한 현장을 묵묵하게 지켰던 것 같다. 고장님처럼 현장에서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노들야학 연대사업팀장으로 활동하며 한광호 열사 장례 투쟁 현장에서 유성 동지들과 함께, 삼성 본사 앞에서 반올림 동지들과 함께, 성소수자 동지들과 함께, 우장창창 등 맘상모 동지들과 함께, 그리고 세월호 투쟁/박근혜 탄핵 집회 등 각 시국집회에 많은 연대 활동을 해왔다. 물론 연대투쟁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에도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어떤 박센 투쟁이든,



어떤 비택이든, 어떤 기자회견이든, 어떤 1인 시위든, 어떤 입법 투쟁이든 가장 먼저 가서 동지들을 기다리며 투쟁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도 아마 가장 많이 지킨 동지일 것이다. 작년, 아니 최근 몇 년간 명학이형의 활동을 이 작은 지면에 나열하기엔 한없이 부족하다. 그만큼 가장 앞서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임엔 분명하다.

작년 명학이형과 함께 투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장애인 생존권 예산 투쟁을 하며 종로종합복지관 옥상을 점거했을 때였다. 7박 8일 동안 점거한 투쟁이었는데 쪽잠을 자며, 햇볕을 피해가며, 청와대를 향해 대형 현수막을 내리고, 대시민 선전전을 하고, 비택을 하고, 전국 결의대회를 하는 박센 투쟁이었다. 각 단위별, 개인별로 하루, 이틀씩 야간사수를 하는 상황에서 명학이형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7박을 꼬박 농성장에서 자는 것을 자청하며 투쟁했다. 몸 좀 챙기며 집에서 주무시고 오라고 걱정하는 동지들의 말에 “괜찮아” 한마디를 내뱉고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꼬박 일주일간 투쟁에 전념했다. 본인은 투쟁기간 내내 노숙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동지들의 몸이 괜찮은지 살폈다.

“깨끗한 공기는 눈에 잘 안 띈다. 맑은 공기, 맑은 물이 제일 소중한다.”

“얼마나 오래 변치 않고 활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김명학 동지는 집회 현장에서 변치 않고 가장 많이 봤던 동지이다.”

정태수상 심사위원회에 한 심사위원의 심사평이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동지들과 항상 투쟁현장을 지킨 명학이형, 그 맑은 웃음에서 드러나는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아름답거나 무척 아름답게 있는 동지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기에 이 상을 받지 않았나 싶다.

명학이형! 노들야학의 큰형님, 장애인운동의 큰형님인 명학이형이 15회 정태수상을 받게 돼서 매우 기분이 좋다. 동지들과 함께 서로 힘주며 항상 가열차게 끝까지 투쟁했으면 좋겠다. 투쟁!

# 별이 된 현이에게...

2016년 12월 22일 우리 곁을 떠난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박현을 추모하며

미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사람 그 자체만으로 존엄하다는 가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활동합니다. 이 공간에서 9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이야.  
작년 추운 겨울에 당신과 우리는 이별을 했는데 어느새 거리에 벚꽃이 피었다.

당신이 떠난 지 4개월이 되어 간다. 근데 현이야.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노들바람』에 너의 추모글을 부탁받았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추모글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시간들을 한 자도 적지 못한 채 잠이 든 시간이 더 많았어. 아직도 믿겨지지 않나봐. 당신이 이곳에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이.. 자꾸 눈물이 나서 한 자도 적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어. 당신을 처음 만난 그 날부터, 마지막 만났던 탈시설권리선언대회까지 함께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어. 권리선언대회 준비로 바쁘다고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가슴 한

편이 먹먹해. 그때도 너는 감기로 목소리조차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픈 너에게 괜찮냐고.. 병원에는 갔냐고, 약은 먹었냐고 물어보질 못했어. 마지막일 거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 너무 미안해.

2009년 당신을 처음 만났고, 당신을 만나러 가는 꽃동네에서 최종훈 동지도, 송국현 동지도 만났는데, 지금은 모두 별이 되어 당신과 같이 있구나. 다 잘 있지?

시설에서 20년여 동안 살다가 나와 자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로 떠난 이들이 생각이 났어. 국현형, 중훈형이 생각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 가슴 한 편이 먹먹해지고 왜 이렇게 빨리 떠났는지, 너무나 짧은 삶을 살다 떠난 이들이 생각나면서 원통하기도 하고 하나님님이 있다면 따지고 싶기도 하고,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봄

에 벚꽃 구경도 가고, 친구들과 놀러도 가고, 아직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멘토역할도 하고, 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든든한 멘토로 먼저 탈시설한 선배로 역할을 찾아가던 당신이 삶이 생각나면서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어디에선가 당신이 나타날 것만 같아. 얼마 전 집회에서 당신과 닮은 사람을 보고 순간 당신이 아닌가 내 눈을 의심하며 그이를 한참 쳐다봤던 기억도 난다. 어디선가 '누나'하고 말을 걸어올 거 같은데... 만약 당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활동을 이야기 하며 탈시설한 동지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제 저녁 핸드폰 카톡방에 메시지 하나가 남겨졌어. “박현님이 나가셨습니다” 이 문구를 한참을 바라보다가 또 울고 말았어. 당신이 떠나기 전 열심히 활동했던 탈시설 당사자 모임 벚바리 카톡방이었는데, 이음센터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탈시설한 동지들에게 모임을 알리고 당신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이었는데 이곳엔 이제 당신이 없어. 내 핸드폰엔 지우지도 못하고 이제 걸 수도 없는 전화번호가 하나 더 생겼어. 국현형처럼, 중훈형처럼...

현이야! 너는 어때? 남겨진 사람들은 당신을 생각하며 때때로 울기도 하고 당신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지내고 있어. 그곳은 어디니? 우리 지켜보고 있어? 지영언니, 국현형, 중훈형, 준혁이, 지우, 지훈이 다 만났어? 다 잘 있지? 그곳에선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있는 거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되어 우리 보고 있는 거지?

현이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하니? 아마 2009년 여름, 이음여행에서 처음 만난 거 같아.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고 했었어. 그때 발바닥은 법상에는 있지만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은 사회 복지서비스 변경 신청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반면 시설에서 나오려고 할 땐 아무런 제도도, 정책도 없는 상황에서 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서비스를 변경해달라고,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음성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깡다구 있는 당신이었지. 아마 그만큼 당신에게 탈시설은 절실했었으니까. 소송 이후 시설에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버티며 3년을 더 시설에서 있었어만 했어.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음



# 나에게서 당신이 빠져있습니다

## 고(故) 이종각 선생님을 추모하며

홍은전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야학에서 상근 활동을 했다. 노들의 오랜 후원자였던 이종각 선생님을 참 좋아했다. 서른 살 생일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책 다섯 권(『삼십 세』, 『해로도토스 역사』, 『전선기자 정문태』, 『벽암록』, 『그대 아직 살아있다면』)을 아직 다 읽지 못했다.

을 알지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당장 나와 살 집도, 생계비 보장도 확실하지 않아서, 선뜻 너에게 나오자고 말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3년을 버티고 마침 음성군도, 정부도 아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한 사업을 통해 서울로 2012년 1월 6일, 16년의 시설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나오던 날이 기억난다. 16년 동안 살았던 시설에서의 너의 짐은 고작 몇 개의 박스가 다였고, 옷가지 몇 개뿐인 짐을 보고 있으니 참, 슬프더라. 한 대의 리프트차에 당신과 국진형이 타고 짐을 싣고 눈썹인 꽃동네를 나오던 그날 기억이 생생해. 그때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

하지만 시설에서 나온 후에 삶이 녹록하지만은 못했어. 자립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다르게 턱없이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활동보조인이 갑자기 집을 나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어야 했던 날도 있었고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며 보낸 시간들. 그때도 당신은 시설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제 곧 나아지겠지, 내가 더 열심히 투쟁해야겠다며 더 투쟁의 거리로 나왔던 당신의 모습이 생각나. 가족에게 부담되기 싫다고, 자립해서 잘 사는 모습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보여줄 거라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했던 말들. 하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다시 한 번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어. 국가로부터 1년 치 통화기록과 6개월간의 통장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 받으며 가족과의 단절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들. 당신은 국가가 국경 없는 이산가족을 만들어 내는 거라고 이야기하며 부양의무제의 문제를 더 알려내기 위한 투쟁의 거리에 서있었지.

매사에 적극적이었고 열정적인 현아, 정말 열심히 살았다.

장애가 있다고 가난하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 그게 아니라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탈시설 권리가 있음을 온몸으로 알려냈던 현아!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투쟁의 자리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는데 너무나 짧은 생을 살다 떠난 당신이 너무 그립다.

이제 사진으로밖에 너를 볼 수 없구나.

시설에서 나와 6년 동안 치열하게 투쟁하며 싸웠던 삶! 일상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했던 탈시설 자립생활 활동가 박현의 삶! 잊지 않을게.

“사회구성원은 탈시설에 연대하라”라고 외쳤던 당신의 삶을 잊지 않을게.

탈시설 자립생활 활동가 현아! 너무 고생했고 당신과 함께한 시간 행복했어. 매순간 치열하게 살았던 현아! 이제 편히 쉬렴!



1 \_\_\_\_\_ 작년에 이종각 선생님 추모제를 마친 후, 행사 순서가 적힌 종이를 집으로 가져와 창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선생님 사진이 있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문득 선생님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날이면 깨닫습니다. ‘아, 돌아가셨지. 이젠 못 보지.’ 그런 순간이면 심장이 조금 아래로 꺼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호식이형이 떠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들으면 서로 되게 친했나 보다, 하겠네요. 이종각 선생님과과는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했으니, 다 해야 열몇 번쯤 만났을까요. 호식이형하고는 15년을 만났는데, 따로 밥 한 번 술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수시로 마음의 구멍이 느껴졌을까 생각해보니, 우리는 모두 2001년에 노들야학을 시작한 동기였더라고요. 저는 교사로, 호식이형은 학생으로, 이종각 선생님은 후원자로. 제가 사랑했던 노들엔 항상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I miss you’는 ‘나는 당신이 그립다’는 뜻인데요. 거기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에게서 당신이 빠져 있

다.’ 그래서 문득문득 그 구멍이 느껴지는 순간, 그걸 그립다고 표현하나 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시절에서 당신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립습니다.

2001년 어느 날 야학으로 전화가 한 통 왔었습니다. 노들야학 학생 스물다섯 명에게 매달 10만원씩 후원을 하고 싶다고요. 1년이면 3천만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후원이었죠. 전화를 건 사람은 ‘중생원’이라는 사회복지재단의 이종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만 요청한 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학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야학 상근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재단이 급히 처분(?)해야 할 돈이 있나보다. 몇 차례 하다 말겠지.’

예상과 달리 후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야학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변동 사항에 대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전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검은 돈일까.’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중생원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2 \_\_\_\_\_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이종각 선생님께서 불쑥 전화를 하셔서 물었습니다. “매일 보내주면 술 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보내준 장학금이 1억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하는 질문이라는 게, ‘매일 주면 술 담가 먹을 수 있냐’라니요. 아마 제가 이종각 선생님께 반한 것은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스런 질문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야학의 최신 정보에 휩쓸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데모를 했는지도 알고 계셨고, 우리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누가 제일 많이 먹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해, 초여름이면 항상 초록색 매실 두어 상자가 야학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2005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또 불쑥 전화를 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어컨 생기면 전기세 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멍해졌다가, 잠시 후 그것이 며칠 전 제가 홈페이지에 쓴 글에 대한 이야기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 해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더위를 잘 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저조차도 견딜 수 없을 정도였지요. 교

실엔 낡은 구식 에어컨이 한 대 있었지만 전혀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홈페이지에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에어컨 후원 안 해주나. 전기세도 같이”라고 썼습니다. 온갖 잡담을 홈페이지에서 나누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저 일하기 싫어 징징댄 것이었죠. 진심도 아니었던 것이, 당시엔 상근자 활동비 주는 것도 버거워, 그걸 보고 누가 진짜로 에어컨을 사줄까봐 오히려 걱정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실이 몇 개나, 사무실은 몇 평이나, 물어보시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연락해, 돈을 부쳤으니 에어컨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실은 몇 평형, 사무실은 몇 평형 에어컨이면 충분할 거다’라고, 미리 알아보신 내용을 꼼꼼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 “삼성 에어컨으로 사세요. 당장은 비싼 것 같아도 AS가 가장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어컨 다 사고 나면 얼마쯤 남을 겁니다. 올해 전기세는 될 거예요.” 이종각 선생님의 후원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선물 같았습니다. 교

3 \_\_\_\_\_ 2007년 어느 날, 얼굴 없는 후원자, 노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돌연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학 사무실로 성큼 들어선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6년 만에 나타난 사람답지 않게 걸음걸이에도 목소리에도 주저함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신기했고, 선생님은 왜 그렇게 쳐다보냐는 듯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좀 놀라웠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그렇게 곱게 잘생길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장애인이 자립해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공간은 관(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관과 손잡고 일을 해선 안 된다고,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기하게도 그 일을 노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었습니다. 야학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본 적 없는 우리를 어떻게 믿었는지요. 선생님은 이동권 투쟁에 대한 뉴스를 보다가 노들야학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노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시고, 믿어도 좋겠다고 판단하셨대요. 2008년 야학이 동송동으로 이사를 온 후, 평원재단(중생원의 새 이름)도 곧바로 자립주택을 짓기 시작해, 이듬해 가을 문을 열었습니다. 자립주택의 이름은 ‘평원재’. 첫 입주자는 그해 여름, 석암 베데스다 요양원에서 뛰쳐나와 탈시설 투쟁을 이끌었던 8명의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종각 선생님도 그곳 꼭대기 층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장애인일수록 좋은 걸 써야해. 그래야 AS가 잘 돼.’ 그건 선생님의 지론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원재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꿈의 집이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이 달려 있고요, 한여름에 추울 만큼 에어컨을 틀어도, 한겨울에 더울 만큼 보일러를 틀어도 선생님은 절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4 \_\_\_\_\_ 작년 4월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1호에 차려졌습니다. 그곳은 정치인 김근태 님이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열사 같은 유명한 분들의 빈소였던 곳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싼 곳이죠. 저는 그곳에 앉아서, 어쩐지 이곳은 이종각 선생님답지 않은 빈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 많은 곳에 절대 나타나지 않고 요란스러운 걸 질색하셨으니까요. 빈소는 한산했습니다. 20년 동안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이셨는데, 친지들이나 몇몇 지인 외에는 조문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301호의 공간이 여느 빈소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한편에 작게나마 입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커다란 전동휠체어를 몰고 방바닥에 앉은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느라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걸 불편해 복도에서 적당히 시간을 보내다 얼른 자리를 뜨지 않아도 되는 곳이죠. 우리는 하루 종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 후 찾아온 조문객들로 다른 빈소들이 북적거릴 때에도 301호의 저편, 방으로 된 빈소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곳은 우리를 위해 마련된 자리구나. 선생님께서 우리 밥 한 끼, 술 한 잔 대접하려고 준비하셨구나. 오지 말래도 올 사람들이니 이왕 온 거 편히 있다 가라고.' 그제야 그 넓은 빈소가, 그 비싼 공간이 참으로 '이종각 선생님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종각 선생님이 소중한듯이, 그에게도 우리가 무척 소중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랬구나. 그에게 우리는 중요한 동지였구나.'

5 \_\_\_\_\_ 평원재단이 있어,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언니가 돈을 모아 조용필 콘서트를 갈 수 있었고, 호식 이형이 그 좋아하는 최신형 전자기기들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평원재단이라는 뒷배가 있어, 2009년 장애인운동의 흐름을 바꾼 탈시설 투쟁이 가능했고, 평원재가 있어 '서울시민이 아니면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에 입주할 수 없다'고 서울시가 밀어낸 사람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원재가 권력으로부터 어떤 보조도,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이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곳이 너무나 '이종각스러운' 공간이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했고,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가졌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지 않을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은 그게 싫어서, 그렇게 도깨비처럼, 불쑥 찾아와 선물을 주고 재빨리 사라졌나 봅니다.

눈이 오면 새벽부터 눈을 치우고, 새해가 오면 멋진 달력을 걸어주고, 감이 열리면 감을 따주고는 사라졌습니다. 평원재 옥상에서 사람들이 고기 파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러라고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연결했지'라며 무척 뿌듯해했던 선생님의 표정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는 군림하지 않았고, 간섭하지 않았고, 애정

도 충성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니다. 디딤돌처럼, 징검다리처럼 그저 자신을, 평원재를 믿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4년 전 이맘때 저는 야학 20년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고군분투해서 처음으로 글 몇 편을 쓴 후 그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조마조마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읽어봐 주질 않더라고요. (ㅏㅏ) 성격이 소심하여, 읽어보라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공공 앞이었지요. 그때 이종각 선생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문장이 기억납니다. '말씀이 비단 같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겐 비단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싶네요.

우리에게 이종각 선생님이 소중했듯이, 그에게도 우리가 무척 소중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랬구나. 그에게 우리는 중요한 동지였구나.'



## 내 친구 피터 고(故) 김호식 1주기를 맞아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을 써왔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몇 년간의 방랑(?)을 마치고,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려고 한다.

내 친구 피터, 그는 목소리가 정말 컸다. 말하는 게 사자후를 토하는 듯했다. 은유 작가는 그를 두고 '아이를 낳듯' 말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다. 그가 온몸을 비틀어 내보내는 말들은 울음을 터트리며 세상에 나오는 아이들 같았다. 그 목소리는 노들야학 첫 수업 때 분위기에 눌러 백기투항 직전에 있던 나를 살려준 지원군이기도 했다. '야, 이거 골 때리네!' 그가 간간이 넣어주던 추임새가 내게는 참으로 고마운 환영사였다.

내 친구 피터, 그가 제일 힘들어 한 과목은 한글이었다. 복지관에서 시작해 20년을 배웠



다는데 여전히 글 읽는 것이 신통치 않았다. 낱글자는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데, 단어가 되고 구절이 되면 처음 읽은 글자들이 궁둥이를 슬슬 빼기 시작하고, 문장 끝에 이르면 앞서 읽어

둔 단어와 구절들이 다 도망치고 없다고 했다. 지독한 난독증이였다. 그런 그가 철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듣기 능력 덕분이다. 그는 읽을 수 없지만 들을 수 있었다. 귀를 통해



들어온 것들은 신통하게도 기억에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랐다. 그러니 누군가 소리를 내서 읽어만 준다면 철학책도 거뜬히 읽어낼 수 있었다.

내 친구 피터, 그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사실 그는 좋은 작품을 하나 썼다.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보고'라는 글인데 참으로 명문이다. 카프카의 소설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차용한 것으로 원고지 20장 분량의 짧은 인생담이다. 뒤늦게 이 인생담을 읽었을 때 나는 그가 '빨간 피터'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그 이름으로 불러야겠다고 다짐했을 때 그는 이미 그 글만큼의 짧은 삶을 마감해버렸다.

내 친구 피터, 그는 술을 참 많이 마셨다. 그건 두 방의 총

탄 때문이다. 그 점에서도 카프카의 피터와 같았다. 원숭이 피터는 사냥꾼에게 두 방의 총탄을 맞았는데, 한 방은 얼굴을 스치며 붉은 흉을 남겼고, 다른 한 방은 둔부에 박혀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게 만들었다. 첫 총탄이 '빨간 피터'라는 이름을 주었고(사람들이 그 붉은 자국만을 주목했기에), 두 번째 총탄은 그를 절뚝거리며 살아가게 했다. 내 친구 피터도 두 방의 총탄으로 '장애인'이라는 이름과 '절뚝거리게' 인생을 얻었다. 다만 그는 카프카의 피터와 달리 두 방 모두 가슴에 맞았다고 했다. 장애인인 주제에 성깔까지 못돼먹었다고 한 방 맞았고, 절뚝거리는 주제에 큰 소리로 웃는다고 또 한 방을 맞았다. 가슴이 그렇게 뚫렸으니 술을 마셔도 고이

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부어댄 모양이다.

내 친구 피터, 그가 총 맞은 후 깨어난 곳도 카프카의 피터 처럼 께짝이었다. 열아홉 살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께짝 같은 방구석에만 갇혀 지냈다. 겨우 정신을 차린 후 복지관에도 나가고 했는데 께짝 크기만 달라졌지, 가두다 풀어주다 하는 식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안전하며 께짝 같은 곳에 가두었다가, 장애인인 날이 되면 올림픽공원에 잠시 풀어놓고, 다시 버스를 태워 복지관에 풀어놓고, 그런 식이었다.

내 친구 피터, 그에게는 출구가 필요했다. 세상을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는 자유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곡예사처럼 공중그네를 구르고 날아서 상대방의 품에 뛰어드는 그런 기예 같은 자유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유를 바란 것도 아니다. 그놈의 '함부로' 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는 몸서리치게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술하게 당해 온 폭력의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출구였다. 절박한 사람, 숨 막히

는 사람에게는 출구만이 자유의 제대로 된 이름이었다.

내 친구 피터, 그는 마침내 야학에서 출구를 찾았다. 공부도 시위도 신통치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술맛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는 께짝 같은 집과 복지관에서 나와버렸다.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게 두려웠지만 마구 '개졌다'고 한다. 활동보조인도 없던 때였는데 좀 무모한 탈출이었다. 그러다가 야학수업에서 나를 만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니체를 만났다. 그는 니체를 읽고는 '야, 이거 골 때리네'를 연발했다. 내가 미국에서 지낼 때 야학교사 한 분이 그의 근황을 전해주었다. "딴 건 안 해도 반드시 철학공부는 하고 싶다고 술주정하신다"고.

내 친구 피터, 그는 스스로 공부하며 출구를 찾아갔다. 정부가 거지 취급한다면, 이참에 당당한 거지근성도 발휘해보고 싶다고. 정부를 상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얻어내서, 뭘 좀 하는 장애인이 되어야겠다고. 그리고 예전에는 잘살든 못살든 혼자 살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울린다는 것이 무언지는 알게 되었

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뛰고 날고 춤추겠지만 지금은 일어서는 법, 걷는 법부터 배우겠다고. 그는 그걸 동화로 써보고 싶어 했다.

내 친구 피터, 그는 모난 성질을 죽이지 않았고, 술도 계속 마셔댔으며, 무엇보다 께팍했다. 술자리에서 그의 불편해 보이는 몸짓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는 이렇게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음식은 흘리면 닦으면 돼. 근데 왜 내가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만둬야지 되냐."

작년 이맘때였다. 내 친구 피터, 그는 가슴의 흉터가 더 이상 저리지는 않은지, 동화는 어느 정도나 진척되었는지, 어울려 산다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훌쩍 떠나버렸다. 내 친구 피터, 그의 이름은 김호식이다.



\* 이 글은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산이 그대 모습을 닮습니다  
그들은 내 생각과 싶어 닮습니다

4.7.10일

故이종각 故김호식 1주기 추모제

- 1. 화형 | 1. 남강당 방앗(10-14시)
- 2. 추모제(17시), 버코니아공원
- 1. 문의 | 02-766-9101(한명희)

2001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대한장애인복지회 주관

이종각 님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이종각 님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합니다. 이종각 님은 1945년 11월 11일 서울에서 태어나 2001년 4월 1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종각 님은 장애인 인권 운동에 헌신하신 분으로, 장애인복지회 회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이종각 님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이종각 님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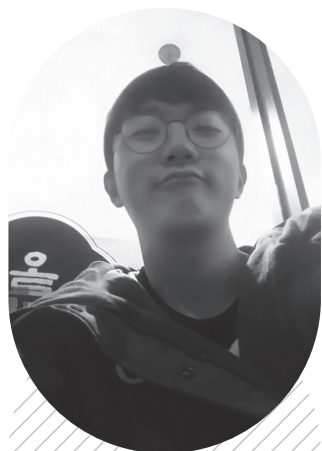
노들장애인야학



#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던 카레 4160그릇 2016년 12월 31일 밤에 열린 '세월호 가족들의 심야식당'

≡ 박정환

운동이라면 몸을 쓰는 운동도 사회를 바꾸는 운동도  
모조리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3주 후 입대해요!



안녕하세요, 신입교사 박정환입니다.

다들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 나이는 21살입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1학년을 마쳤어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태권도, 축구, 배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원래 역사 공부를 좋아해서 사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이런 제가 노들야학에 오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냥 대학교 친구들과 추억을 쌓으려고 온 날에 노들야학에서 후원주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각자 흩어져서 다른 일을 했었는데, 저는 서빙을 했습니다. 무언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걸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노들야학의 후원주점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 같이 술과 음식을 즐기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사람들은 제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가 잘 알고 있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노들야학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렵듯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후원주점 이후로도 틈틈이 수업보조나 정자 누님의 수학 과외 선생님(?)을 맡으면서 노들야학과 얽은 실 같은 인연을 이어나가게 되었네요. 지금은 은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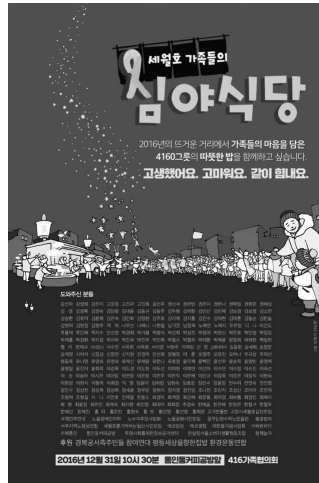
수업보조를  
들어가서  
어리둥절한 상태로  
학생 분들과  
인사를 했고,  
후원주점에서  
서빙을 하면서  
칠패일을 얻어 마시고  
얼굴이 새빨개진 기억

입교사로 등록해서 인준을 받았습니다(작작)!

얇은 실이라고 말했지만, 노들야학에서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면서 지낸 거 같습니다. 수업보조를 들어가서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학생 분들과 인사를 했고, 후원주점에서 서빙을 하면서 칠패일을 얻어 마시고 얼굴이 새빨개진 기억, 광화문을 가득 채운 집회 참가, 너무나 추운 날씨였지만 진수 선생님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농성장 지킴이. 특히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의 [세월호 가족들의 심야식당]에 노들야학 교사로 함께 참여한 순간은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의 비극은 처음에는 저에게 별 감흥이 없는 그저 그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무척 부끄럽게도 '나는 수학여행을 그 전에 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주변 친구들이 그 일을 생각하며 기숙사 침대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에 '유난 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저는 대학교에 입학했고 캠퍼스 내에서 접할 수 있었던 노란 리본에 무언가 마음이 동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백남기 농민 추모 행진을 시작으로 저는 우리 사회 속의 여러 사건 사고와 부조리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노들야학 교사회의에서 [세월호 가족들의 심야식당]의 제안서를 보았고, 투쟁의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대학교 친구들과 이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안한 친구들은 흔쾌히 수락했고, 심야식당 개시 전날 오





후 저희는 식당 준비를 위해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지하 홀에서 시작한 일은 야채 손질, 짐 나르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짐 나르기가 많이 무거워 힘들었지만, 유가족 분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추운 날씨지만 마음이 따뜻했고, 무거운 짐을 날랐지만 깃털같이 가벼운 발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와서 일을 하는 모습은 한층 저희를 흐뭇하게 하기도 했죠.

개시 전날 사전 준비를 마치고, 저희 일행은 식당 배식과 광화문 행진의 교통정리를 위해 다시 참여연대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였지만, 호기롭게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나온 저는 다음 날에 당연히 감기에 걸리고 말았죠(슬픔). 2016년의 마지막 날, 무수히 많은 촛불을 제 앞으로 스쳐 보내며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손발이 얼 것 마냥 춥던 한 해의 마지막 날,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던 카레 덕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구나. 이 카레가 존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과, 미안함이 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요(웃음).

2017년 3월 10일, 우리는 광화문 투쟁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가 탄핵 인용 사유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마지막 날에 느낀 따뜻함, 흘렸던 눈물을 인양된 진실과 함께 다시 한 번 느끼고 싶다는 기분이 드는 밤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좋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노들야학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 함께 소리쳐요! 우장창창!!



영희

휴직 교사.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서  
좀 더 예쁜 세상을 꿈꾸고 있다.  
최근, 하던 일을 휴직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음. ^^

와! 정말 오랜만에 『노들바람』에 글을 씁니다. 영광이에요. ^^

작년 여름, 인터넷 공간을 제법 시끌시끌하게 했던 “우장창창”이라는 곱창집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부동산을 할 때 이 가게를 얻어주게 된 일이 계기가 되어 2013년부터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임대차 제도 때문에 ‘가게’라는 살터를 잃고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곳이지요.

우장창창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가게였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잔하거나, 점심 때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는, 혹은 저녁 때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그런 수많은 가게들 처럼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가게들이 사실은 항상 커다란 위협에 놓여 있었어요. 임차인의 권리

라고는 전혀 없다시피한 법과 제도 때문에, 그야말로 임대인의 한마디에 삶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우장창창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법과 제도가 조금만 더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힘들고 지난했던 투쟁은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로 결국 잘 마무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장창창을 비롯한 많은 임차상인들은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답니다. ^^

‘남 일 같지 않은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그 일이 제발 ‘남의 일’이기를 바라지도 몰라요. 일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얘기도, 집이나 살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얘기도, 복지제도로부터 소외된 사람





들의 얘기도. 그리고 삶과 안전,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사람들의 얘기두요.

하지만 제발 '남의 일'이기를 바랬던 그런 일들은 나, 혹은 내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맘상모의 임차상인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막상 일이 닳았을 때 주위를 둘러보았고, 생각했지요. "어디 도움을 청할 곳이 있을까? 혹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헤쳐 나갔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구요.

그렇게 모였고, 함께 하나하나 바꾸어 나갔습니다. 삶을 빼앗겼을 때, 누구도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모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거 아니냐며 사실상 삶을 포기하라고 할 때, "이런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고, "남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비슷한 처지의 임차상인들, 그리고 노들야학과 같은 든든한 친구들이 말이에요.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상인이 장사하고 싶다고 싸우고, 농민이 농사짓고 싶다고 싸우고, 노동자가 일하고 싶다고 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싸우는. 그저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것이 소원인 상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자국이 있습니다. 맘상모가 천천히 걸어가며 배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과 모두가 맘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맘상모가 연대 활동을 하며 주문처럼 되뇌는 시를 하나 소개하며, 우장창창 이야기를 마칠게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노들을 비롯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우장창창 사장님과 맘상모 회원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 노란들판에는 특별히 고맙다는 말을 따로 남기고 싶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우장창창, 또 다른 맘상모, 그리고 또 다른 노들이 싸우고 있겠죠? 자주, 그리고 오래 만나요!! 곳곳에서!! ^^

### “연대의 한길로”

(원작 : Airsoyoung, 번역 : 영희)

내가 한자리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작고 오래된 단골집을 가질 권리가 만날 때,

건물주 눈치 안 보고 가게를 꾸밀 수 있는 권리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게를 가질 권리가 만날 때,

건물주에게 영업방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와 다양한 소수자들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만날 때,

가게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와 집과 거리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만날 때,

권리금을 약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크나큰 자본에게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가 만날 때,

우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따로 또 함께' 연대하며 살아요. ^^

## 장애인 독립진료소 5 + “3주년”을 맞아

김지민

장애인 독립진료소 운영위원,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정책차장

세월호가 침몰하기 3일 전, 평소처럼 노들야학에서 장애인 진료를 하고 있던 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악몽 같은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시설에서 살다 처음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던 송국현 아저씨가, 불이 났는데 대피하지 못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청한)가 장애인 독립진료소 운영을 맡게 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고 얼마 전 송국현 아저씨는 언어장애 3급, 지체장애 5급, 중복장애로 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대상자(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탈락하여 의의신청을 낸 상태였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갔던 활동가들은 울먹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체험홈은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화재가 난 지 얼마 안 되어 문 열린 방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집 주인이 안에 사람 있냐고 물어보았대요. 그런데 송국현 동지는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다 알아듣지만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집주인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리



를 떠버린 거죠. 동지가 걸을 수라도 있었다면, 아니 말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구조 요청조차 하지 못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던 몇 달 전이었더라면 그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기. 사람이. 있다.

2009년 용산 참사 이후로 5년 만에 다시 이 말이 이토록 가슴을 짓누를 줄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복지 논쟁이, 누군가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끔찍한 현실과 또다시 대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보건복지부 장관 집 앞에서 해명을 기다리며 노숙과 단식 농성을 하며 세월호 분향소가 있는 시청광장 옆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분향소를 세웠지만,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의 영정 사진은 계속 늘어만 갔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무렵, 부패한 박근혜 정권은 침몰하고 세월호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세월호가 떠오를 때 지난 3년간 억울하게,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죽거나 다쳤던 얼굴들을 같이 떠올렸던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노들야학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할 때 ‘한방의료활동 들풀’의 의료연대로부터 시작되었던 장애인 독립진료소가 벌써 9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발바닥) 여준민 활동가의 말처럼 ‘벌써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노들 장애인 야학, 그 자리에 진료소는 일요



일마다 있어왔습니다. 청한이 독립진료소를 이어 받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새삼 “5 + 3주년”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3년간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1500번 넘는 장애인 분들과의 만남, 진료소와 환자분들의 집까지 바쁘게 오갔던 연인원 500여명의 노들, 발바닥, 청한, 한의대 학생 진료팀의 노고에 다시금 놀랐습니다. 2015년 10월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017년 12월부터는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 장애인 분들이 병원에 오지 못하는지, 왜 비장애인라면 죽지 않을 문제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평생 한의원을 해도 한 번 마주치기 힘든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부터 시작했던 3년 전을 돌이켜보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건강권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해주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노들 장애인 야학”,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장애인 독립진료소 자원활동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민들레 10년을 말하다

『노들바람』에 등 떠밀려

박장용

민들레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극을 좋아하고, 보드게임을 좋아합니다. 2018년도부터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변사람들을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번덕이 심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민들레장애인야학 10주년을 맞이하는 글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노들장애인야학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식의 글이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민들레 10년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민들레 초창기 멤버 5인(길연, 수미, 재근, 명문, 상민)과 방담회(放談會)를 진행하였습니다. 민들레 10주년에 대한 글을 힘 안들이고 좀 쉽게 써보려는 생각이었지만 글에 대한 고민은 더 늘어났고, 방담회는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모여서 10년사를 정리해보자는 제안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노들바람』 때문입니다.

방담회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스쳐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얘기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니, 첫사랑의 추억에 볼 발그레 지고 손발이 오글거리고 큰 사람이 된 듯 부들해 했다가, 늘어난 세월 말고 늘어난 몸무게가 화제의 중심이었다가, 다시 많은 것들이 변한 것에 대한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10년의 상처와 기억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이야



2009년 여름수련회

기를 하면서, 어쩌면 민들레의 10년은 현재의 구성원들과 스쳐지나간 모든 이들의 나이를 합친 만큼의 10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충만 계산해도 스친 인연이 100명이고 평균 나이가 30살이라고만 해도 민들레는 이미 3,000년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있잖아요. 아니, 어쩌면 민들레장애인야학에서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칠 때 이미 영원이 시작된 건 아닐까하는 생각 있잖아요. 거울과 거울이 마주보면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상이 끝없이 이어지듯이, 서로의 눈동자가 서로를 비추는, 시간과 공간의 끝을 알 수 없게 된 영원 말입니다.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다 『노들바람』 때문입니다. 글을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내는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아무튼 저는 지면을 통해 방담회를 선택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마 소개할 수 없는 비밀 얘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소개되는 방담회의 내용은 글의 삽화이기도 하고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왕궁도사님의  
예언

아주 오래된 옛날이야기가 그렇듯이, 민들레의 이야기는 왕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민들레장애인야학이 처음 입주해서 지냈던 건물 이름이 '왕궁프라자'였기 때문에 줄여서 왕궁이라고 부르는데, 이 왕궁에는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궁에 계셨던 어느 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 길연** 왕궁에 살 때 4명의 학생 분들이 공동생활을 했는데, 생활하는 그곳이 방이냐 교실이냐 회의실이었어요. 그때 재근이가 그랬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왜 데모를 하냐고'.

**\* 재근** 내가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 상민, 수미, 명문, 길연** 니가 그랬어!

**\* 길연** 아무튼 도사님 얘기를 하면 왕궁 시절 어느 학생 분의 사촌이셨는데, 활동보조인이 없던 시절 학생들의 활동보조를 자원봉사로 해주신 분이셨어요. 집에선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정신병원에 감금했었고, 나중엔 이 분이 퇴원을 해서 본인 말로는 삼 년간 산에서 도를 닦았다는데, 어느 날 제가 엄청 힘든 날, '동생 이래 저래서 힘들지?'라고 제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눈물을 펴 펴 흘렸던 일이 있었어요. 진짜 뭔가 도사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

맨 뒤에, '민들레 뒤에 서광이 비친다. 얼마 안 있으면 건물을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우리는 2012년도에 민들레 이름으로 지금 현재의 공간을 매입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저는 그 분을 진짜 도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용** 근데, 그 분은 어떻게 가시게 된 건가요?

**\* 길연** 저녁에 잠을 안 주무시고 칼을 갈고 혼잣말로 욕을 하시고 하니까, 생활하던 학생들이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도사님께 말씀드렸고, 도사님은 또 순순히 알겠다고 하시며 나가셨어요. 그때 주머니에 2만원밖에 없어서 차비라도 하시라고 드렸더니, 됐으면서 나가신게 민들레에선 마지막이었고요. 2009년도 계양구청에서 투쟁할 때 지나는 길에 얼굴 마주친 게 마지막이었네요.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우리가 왕궁에서 살 때는 말이야'라는 이야기로 시작된 왕궁에서의 생활은 도사님 얘기와 함께 전설 같은 아득한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들 들락거린다고 눈치 주던 게 왜 그리도 서럽던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할 여유가 생긴 지금'과 대비되어 더욱 더 아련한 이야기가 되었지요. 민들레는 '왕궁플라자'에서 다시 '계산플라자'로 이사할 때까지도 계속 집주인과 주변 상인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어요. 왜 하필 우리가 입주한 건물에는 플라자라는 이름이 들어갔을까? 'Plaza'의 영어 뜻을 찾아보니, '(도시의 공공)광장'이라는데, 2008년 '계산플라



2008년 천막야학

자'에서 우리는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 다 까이고, 교육청 앞 공공 광장에 천막을 치고 수업을 하는 천막야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주한 건물 이름들이 민들레가 광장에 나올 운명을 예견한 건 아닐까요?

2008년 3월부터 시작된 천막야학은 민들레를 중심으로 한 16개의 시민·사회·노

동단체의 끈질긴 연대투쟁으로 2008년 6월 나근형 교육감으로부터 장애성인교육 협의기구 구성과 장애성인교육 특별육성기금 지원을 약속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민들레가 입주한 건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궁도사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도록 밀고 간 힘은 민들레 구성원들의 가열찬 투쟁이었습니다. 민들레는 투쟁을 알게 되고, 투쟁의 효과도 알게 되고, '투쟁이 대박'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투쟁하고  
코피 나고

**\* 상민** 2009년 투쟁이 제일 기억에 나네요. 2009년에 계양구에 장애인생활시설이 신축된다는 얘기가 들렸을 때, 독실동이라고 논밭밖에 없고 차도 안 다니는 그런 곳이다 시설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시설 못 짓게 싸웠지요.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시설 지을 터에 땅을 파고 있었는데, 펜스 앞에서 사다리랑 쇠사슬 이용해서 포크레인 못 들어오게 막고 서있는데, 시청이랑 구청이랑 공무원들이 개떼같이 오고. 우리가 구호 외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싸우다가 쉬는 동안 구청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 왜 담배 피냐고, 그것도 여자가"라는 소릴 해서, 그 얘기 듣고 열 받아서 엄청 싸우고 거점 옮겨서 임학사거리를 점거해서 쇠사슬로 다 묶고 그랬지요. 계양구에 얘기

들어보니까 80년대 이후로는 데모가 없었다고,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장까지 나오더라고. 솔직히 우리가 인원은 별로 안 됐는데.

**\* 길연** 그때 재근 어록이 하나 탄생했잖아요.

**\* 상민** 맞다.

**\* 장용** 정보과 형사가 재근에게 와서 "이름이 어떻게 돼요?"라고 물으니까 재근이가 "이명박이요"라고 했던.ㅋㅋ

**\* 재근** 저는 개인적으로 계양구청에서 코피 흘렸을 때가 제일 부듯했어요.

**\* 장용** 부듯하기까지? ㅎㅎ

**\* 재근** 왜냐하면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코피를 흘려서 독거를 인정했으니까.

**\* 장용** 그래, 그때 얘기는 승하한테 들어야 제 맞인데.

2009년 계양구청에서 중증장애인 2명이 같은 주소에 살고 있으면 독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제공받던 활동보조서비스 독거 인정 시간을 모두 줄이겠다는 통보를 한 일이 있었지요. 전에는 없던 일이 공무원이 새로 부임하면서 발생하자 당장의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분노한 민들레 회원들은 바로 앞의 구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면담을 하던 도중 '경찰 불러!'라는 말에 흥분한 회원들과 공무원 간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서류와 사무 비품들이 파손되었으나 재근이 갑자기 코피를 쏟는 바람에 모두 숙연해졌고, 코피를 나게 한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계양구에서만 예외적으로 한 집에 중증장애인이 2명 살더라도 독거를 인정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절대 비밀로 했던 사실이지만 재근은 코가 약해서 조금 흥분하거나 건조하면 코피를 쏟는 구력이 있었지요.

갈등이 없을 수 없다면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민들레입니다. 그것이 민들레의 스타일이므로 일상에서도 드러납니다. 민들레 문집에 있는 두 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왜 회비를 내나 - 신동문**

보치아 회비 왜 내나  
은아는 회비 왜 걷나  
나 돈 없는데  
나중에 애인하고 같이 살 건데  
왜 회비를 내나  
왜 회비를 걷나

**백만원 있었음 좋겠다 - 김은아**

백만원 있었음 좋겠다  
왜냐고?  
학생회비 내가 다 낼 거니까  
사람들 회비 달라 하면  
돈없다, 죽겠다, 안 낸다, 아깝다,  
몸 아파 병원비로 다 썼다.  
수급자가 아니라서,  
돈 줄 시간이 없다, 한다  
그때마다 열 받기도  
오죽하면 저럴까 안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꼭 내가  
방세 독촉하는 못된 주인이 되는 기분이다  
나도 인심 좋은 집주인처럼  
인심 좋은 총무가 되고 싶다  
백만원 있었음 좋겠다.

(민들레 여섯 번째 문집 『민들레 입을 떼고 6』, 33~35쪽)



2011년 가을소풍

학생회의에서 제일 큰 갈등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과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입장 사이의 충돌입니다. 연성이 높아지며 싸우고 나면, 시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거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찾아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언젠가 또 다시 연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연극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변한 것**

- \* **길연** 그때는 세상이 무서웠고 시선이 무서웠어요. 스스로 환자라고 생각했었고 작은 일에도 힘들어 했고 개인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내부적인 시스템도 없었고요.
- \* **재근** 그때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고 지금은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활동가가 되고 싶어요.
- \* **길연** 아! 그때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불쌍해진 것. ㅎㅎㅎㅎ

**변하지 않은 것**

- \* **명문** 저는 개인적으로 섭섭한 게 참 많아요. 작년인가 반농담식으로 나한테 감사장 줘야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왜냐하면 10년 동안 급격하게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보니, 스쳐간 사람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고 저분만 아니라 고마운 사람은 고맙다고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없고 하다 보니깐.
- \* **길연** 전장연에서 초창기 멤버들에게 감사패 주는 것 보니 좋던데,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 \* **상민** 그런 걸 장 챙기지 못한 부분에 선 민들레가 1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민들레가 10년밖에 안 됐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 훨씬 더 오래 된 것 같은데'라는 말을 들을 때는 부듯해져요. '역시 민들레다'라는 말을 듣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올바른 일을 위해서라면 주변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도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함께 하는 동지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이 마른 것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동지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정담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보상의 전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반갑게 연대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노란들판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민들레가 만난 가을을 선물할까 합니다. 우리가 만난 가을을 노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민들레가 노란들판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투쟁!



**가을이 왔다 - 글쓰기 반 공동상작**

앞사귀 물드는 가을이 왔다  
 예순이 가까워지는 온몸으로 들어와  
 손끝과 발끝으로 차갑게 물드는  
 돈없어 여름 이불도 못 바꾸는 가을이 왔다

비장애인인던 어린 시절  
 운동회 계주를 함께 돌던 바람처럼  
 여름 내내 부지런히 돌아주고  
 집 한 편에 쓸쓸히 고개 숙인 선풍기처럼  
 돌고 돌아 가을이 왔다.

휠체어에 구겨질까  
 두 팔 넣기 힘들어 한팔 뺀기 힘겨워  
 입과 싶은 반코트 대신 품이 큰 잠바뿐이라서 못 입는  
 속 좁은 가을이 왔다

한 여름 덥고 더워서 못 먹은 소주  
 겨우 먹을 수 있는  
 외롭고 외로운 가을이 왔다.

반팔티를 마지막으로 입던 시월 삼일  
 오리 궁둥이 애인과 이별한 시월 십일  
 가수 김현식이 떠난 십일월 일일  
 계단 있어 못가고 동생혼자 치르는  
 시월과 십일월 엄마 아빠의 제사

태어나 한 번도 못 가본 산  
 붉어진 가을 산  
 속도 모르는 모기가  
 가려워도 긁지 못하는  
 내 몸 군데군데를  
 붉게 물들이는  
 가을이 왔다.

(민들레 여섯 번째 문집 『민들레 입을 떼고 6』, 5쪽)

**가을이 오면 떠오르는 말**

- \* **경진** 우리는 언제 가을이 왔다고 느낄까요?
- \* **은아** 나무 앞사귀가 물들 때.
- \* **정순** 몸으로 느껴져, 다리에서 들어와.
- \* **승렬** 추워질 때.
- \* **동문** 돈 없어서 이불 못 바꾸고 있어요.
- \* **정순** 이불 세 개 필요해. 봄가을. 여름. 겨울.
- \* **동문** 에어컨 끄 때.
- \* **은아** 좋겠다, 에어컨도 있고.
- \* **지희** 선풍기를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 \* **경진** 그럴 때 선풍기가 참 쓸쓸하게 보여요. 치
- 워줘야 하는데 그냥 놔두면, 여름 내내 열심히 돌아줬는데.
- \* **정순** 감이 열릴 때.
- \* **지희** 여름에 열려서 가을에 익조.
- \* **경진** 야학 근처 아파트 단지에 감나무가 있는 길 이 있어요. 분위기 좋아요.
- \* **동문** 나무 빛깔이 노랗고 빨갛고.
- \* **경진** 집에서 걸어오다 보면 냄새가 좀 나죠. 가을 냄새, 그 중에 은행 냄새.
- \* **동문** 날씨가 빨리 와요.

- \* **경진** 여름이 가는 것이 아쉽나요?
- \* **정순** 아쉽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 \* **경진** 칠판 나무에 가을하면 떠오르는 낱말들을 적어서 이파리처럼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낱말마다 문장 하나씩을 완성해 주세요..
- \* **승렬** 운동회. 옛날 학교 다닐 때 계주를 뛰었다.
- \* **은아** 소주. 여름에는 더워서 소주를 못 먹었는데 가을엔 외로워서 먹을 수 있어요.
- \* **지희** 가을밤. 가을밤은 냄새가 달라요. 뭐랄까, 쿼쿼한 냄새랄까. 약간 낙엽 냄새 같기도 하면서 여름밤의 비릿한 냄새랑은 다른 냄새가 나요.
- \* **경진** 이별. 10월3일. 여름 반팔 옷을 마지막으로 입던 날, 한 여자와 헤어진 날.
- \* **동문** 배추. 가을에는 김치 담그고 먹는다.
- \* **경진** 11월 11일 가수 김현식이 죽은 날.
- \* **은아** 첫사랑. 11월, 그와 헤어진 달.
- \* **정순** 산 한 번도 못가 본 가을 산.
- \* **동문** 집게벌레. 왜 나오나, 어디에서 나오나, 궁금하다.
- \* **명호** 겨울이 온다. 이별의 아픔도 아직 저물지도 않았는데 겨울이 온다.
- \* **정순** 잠바. 반코트 입고 싶는데 품이 큰 잠바뿐이라서 못 입어. 얇아 있어야 돼서 불편해서 못 입어. 신축성이 없어서 팔이 안 들어가요.
- \* **동문** 모기. 모기는 위이잉 소리 내고 잠을 못 자게 한다. 가렵고, 어으으으!
- \* **정순** 그대로 같이 자는 수밖에 없다..
- \* **경진** 준비는 하고 주무시죠? 모기장이나 모기약?
- \* **은아, 명호, 정순** 효과 있어요.
- \* **경진** 비장애인은 가려우면 굶으면 되는데, 못 굶을 때는?
- \* **승렬** 이불을 뒤집어써요.

- \* **동문** 아으 짜증나!
- \* **경진** 송렬 씨는 이불이 있으면 혼자 뒤집어 쓸 수 있으세요?
- \* **승렬** 네.
- \* **은아** 발바닥 물리면 진짜 짜증나.
- \* **동문** 입술 물리면 진짜 짜증나.
- \* **명호** 어느 정도 피를 먹으면 배불러서 지가 지쳐요.
- \* **동문** 바지. 가을에는 반바지를 입지 않는다.
- \* **명호** 쌀쌀한 바람. 쌀쌀한 바람이 밤새 창문 틈으로 들어오면 잠 못 이루고 아침에서야 겨우 자는데 두 시간 겨우 자고 일어나는 나.
- \* **은아** 그리움. 10-11월이 싫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라서. 동생 혼자 지내는 제사. 계단이 있어서 못가요.
- \* **정순** 책.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책 한 권을 읽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마음이 급해져요. 가을. 겨울밖에 안 남았으니까.
- \* **지희** 담배. 가을에 성냥으로 켜는 담배는 정말 맛있지.
- \* **경진** 누가 성냥으로 불을 켜서 대주면 더 맛있고.
- \* **정순** 담배. 1980년대 서른 즈음, 가을에 담배를 엄청 맛있게 피웠지. 되게 고소했어. 그리고 손. 언제부턴가 가을이 되면 손이 더 차가워져요.

(민들레 여섯 번째 문집 『민들레 입을 떼고 6』, 9~13쪽)



2010년 창작극 독립선언

【노들 책꽃이】

# 장애학, 장애를 다시 정의하는 혁명을 시작하자

(콜린 반스 외 엮음,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김도현 옮김, 그린비, 2017.)

박정수

2016년 3월에 『비마이너』 객원 기자로 일하러 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기사 쓰는 대신 꽃 가꾸고 농사짓고 있다. 현재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철학 수업도 하고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공부도 하면서, 또 옥상에서 지을 농사를 준비 중이다.

장애인운동조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올해 슬로건으로 '혁명의 시작'을 내걸었다.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로 사회를 바꾸는 혁명을 시작하자는 거다. 혁명? 그것도 장애인? 그들은 사회학자 존 맥나이트(John McKnight)의 말을 빌려 혁명을 이렇게 정의한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혁명이란 그저 한 사회의 우두머리를 바꾸

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문제설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가령 우리 사회의 문제꺼리로 여겨진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민들이 나서서, 오히려 문제는 자신들을 문제시하는 사회적 의식과 질서에 있음을 확인시키며, '정상'이란 무엇인지, '국경'이란 무엇인지, '성'(sexuality)이란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 사회를 바꾸는 혁명이다. 장애인운동조직이 '혁명의 시작'을 외치는 것은 생뚱맞은 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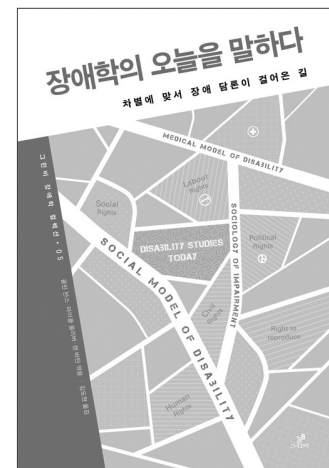
때마침 이런 의미의 혁명 담론으로서 장애학(disability studies)에 관한 책이 번역 출간되었다.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는 콜린 반스(Colin Barnes), 마이클 올리버(Michael Oliver), 렌 바턴(Len Barton) 등 영국 장애학의 1세대 이론가들이 편저한 책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장애학이 출현한 과정과 장애학 내부의 쟁점들을 다룬 13편의 글을 모아 놓았다. 이 책은 학문적 관점에서 장애학을 설명한

책이 아니라, 운동적 관점에서 장애학의 존재 이유와 문제의식을 알게 하는 책이다. 특히 영국의 장애학은 장애학이 장애인을 정의하고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문, 즉 국가학(통치학)이 아님을, 장애학은 문제로 정의된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운동 속에서 장애는 개인적 결손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장벽이라고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혁명 담론으로서 출현했음을 보여준다.

## 장애인 운동 속에서 장애학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영국에서 장애학은 60년대 말의 대항문화 속에서, 70년대 '분리저항하는신체장애인연합'(UPIAS), '장애인해방네트워크' 등 장애인운동조직의 전투적인 활동 속에서 출현했다. 장애학 과정은 처음부터 대학 내 분과학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1975년 오픈 유니버시티의 학제 간 연구팀에 의해 만들어졌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장애인 임상심리학자 빅터 핀켈스타인(Victor Finkelstein)이다. 그는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운동가이자

장애인운동가였으며, UPIAS의 창립 멤버이기도 했다. 오픈 유니버시티는 이름 그대로 18세 이상, 영국 거주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학문 분과에 얽매이지 않은 학제 간 연구와 새로운 교수법으로 기성 교육에서 배제된 이들의 접근권을 보장했다. 오픈 유니버시티의 장애학 과정은 개설 첫해 1,200명 이상의 학생을 모았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온 관련 전문가, 자원활동가,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장애학 과정은 1994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두 차례 갱신되었으며, 거기서 생산된 풍부한 자료는 영국 전역 주류 대학들의 학부 및 대학원에서 장애학 과정과 전문가 양성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렇게 출현한 영국의 장애학은 산업혁명 이래 장애를 규정해 온 의존, 자선, 의료, 우생학 담론에 도전하여 장애를 양산하는 사회적 환경들에 대한 유물론적 연구를 조직했다. 의료적 장애모델에 대한 그들의 '사회적 장애모델'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시민



권을 쟁취하는 투쟁의 근거를 제공했다.

하지만 다분히 맑스주의적·유물론적 사회학에 입각한 영국의 장애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전에 부딪혔다. 한편으로 사회적 장애모델은 동시대에 출현한 '몸의 사회학', '푸코의 권력 이론', '페미니즘' 등 전통 맑스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장애를 둘러싼 담론과 권력을 분석하는 이론적 실천에도 전방했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 제도 안에 편입되면서 장애학은 체제 내화할 위험에 직면했다. 대학은 장애인운동조직보다 국가 행정조직과 더 많은 친연성을 갖고 있다. 국가학으로서의 '객관성', '책임성'을 요청받으면서 장애학은 혁명적 담론



의 전투성과 실제성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는 장애인운동과 장애학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장애인운동조직에 종속되지도 않으면서, 통계학(statistic, 즉 국가학)에 흡수되지도 않는, 소수적이고 혁명적인 장애학의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장애학 연구조직은 정부, 대학, 장애인운동조직과 어떤 거리를 두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국가학으로부터 탈주하는 장애학은 어떤 새로운 연구 방법론과 연구 윤리를 발명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이 책을 번역한 김도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가이자 노동장애인야학 교사로, 최근 ‘노동장애학궁리소’라는 장애학 연구조직을 만들었다. 대학 내 장애학 과정이 아직 하나도 없고, 2015년에 만들어진 ‘장애학회’가 하나 있지만 별다른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운동조직과 연결된 ‘노동장애학궁리소’가 앞으로 어떤 혁명적 담론을 생산할지 기대되며, 이 책은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

### || 소수자 운동 속에서 장애학은 무엇과 이웃하고 있는가?

미국의 장애학은 정체성의 정치와 관련하여 장애학의 횡단성을 사유하게 한다. 미국의 장애인운동은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보호의 관점인 ‘퍼터널리즘’(paternalism)과의 싸움으로, 탈시설, 자립생활, 활동보조를 위한 시위, 버스 운행 저지, 시민불복종, 법률 제정, 소송으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다. 그 결과 1977년 ‘장애인에 관한 백악관 컨퍼런스’가 열려 3,000명 이상의 학계 및 장애계 대표자들이 모였으며, 그 해 처음으로 장애학 과정이 대학에 개설되었다. 미국의 장애학은 장애 정체성 형성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연구가 많다. 장애인이 개인적·집단적 차원에서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는 방식은 무엇이며, 사회적으로 장애가 인식되는 문화적·상징적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미국 장애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장애인운동의 압도적 다수가 교육받은 중산층 출신의 가시적 장애를 가진 백인 남성이라는 점이다. 가령 서부 외곽의 빈민가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아프

리카계 미국 여성은 확고한 장애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장애 정체성 외에 인종적, 계층적, 젠더적 정체성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장애인은 장애인이기만 한 게 아니다. 그녀 혹은 그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 그녀 혹은 그는 흑인이거나 히스패닉일 수도 있고, 게이이거나 레즈비언일 수도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 그는 여성이고, 노인일 수 있다. 소수민족 장애여성의 체험에서 젠더, 인종, 장애라는 각각의 사회적 분할은 서로 어떻게 결합되고 상호작용할까? 흑인 장애 여성이 승진에 탈락했을 때 그것은 장애 때문일까? 여성이어서일까? 때로는 장애인 차별이 여성 차별을 은폐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남자 장애인의 성욕과 여성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다른가? 장애인의 성과 무성애자의(asexual) 성은 어떻게 다른가? 장애 정체성을 절대화하지 않고 자기 안의, 혹은 타인들의 다른 정체성들과 장애 정체성이 혼합되고, 연결되고, 치환되고, 상충하는 이유와 방식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은 그동안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2012년 8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 이후 빈민 운동,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 철거민 운동, 성소수자 운동, 페미니즘 운동과 물리적으로 연대하는 경험을 쌓아 왔다. 이런 운동의 연대는 장애학(disability studies)과 여성학(women’s studies), 게이·레즈비언학(gay and lesbian studies), 흑인학(black studies), 소수민족학(ethnic studies)과의 연관을 사유하게 한다.

장애학은 장애인이라는 특이한 집단에 대한 특수 학문이 아니다. 장애학은 장애와 비장애의 분할선이 여성과 남성의 분할선, 정상적인 성과 비정상적인 성의 분할선,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 사이의 분할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분할선들이 그어지는 이유와 방식들 간에는 많은 공통점과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또한 장애인은 우생학적 추방의 경험 속에서 동물적 삶과 가까운 경험을 갖고 있으며, 생체공학(bionics)의 발전 속에서 사이보그(유기체+기계

체)와 친근한 존재론적 경험을 갖고 있다.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척도, 인간의 고유한 본질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 장애학은 정상과 비정상, 나아가 인간과 비인간의 분할선에 대해 탐구한다. 19세기의 인간학(human science)이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21세기의 인간의 척도를 해체하는 새로운 인간학이라 할 수 있다.

### || 신자유주의 통치 하에서 장애학은 무엇을 연구해야 하나

이 책은 2002년에 영국과 미국에서 처음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 책이 다루는 이슈들은 이미 지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심화될 문제들이다. 특히 이 책은 ‘지구화’란 이름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장애인이 처한 삶의 위기를 진단한다. 신자유주의적 통치 하에서 복지 영역과 노동 영역이 동시에 축소되면서, 노동하지 못하는 자들, 복지수당을 받는 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가 심화되고 있다. 탈-노동사회가 도래하고 노동가치론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비노동적

삶을 가치화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장애인의 삶을 가치화하는 것은 이제 장애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탈-노동사회를 위한 일반 사회학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신자유주의 속에서 장애인 ‘케어 홈’의 상품화가 확산되어 돌봄이 시장의 논리에 종속될 위험을 경고한다. 바우처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한국의 복지정책 하에서 돌봄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 공동체의 인간관계와 시장의 인간관계 각각의 특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집중된 신자유주의 윤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가를 매개로 한 인간관계와 시장(화폐)을 통한 인간관계, 일상의 공동체적 인간관계 각각의 특성은 무엇이고, 돌봄(복지)의 인간관계는 어떤 원리로 가져가야 좋을지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장애학에 주어진 과제다.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를 번역한 김도현 씨의 ‘노동장애학궁리소’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다.

\* 이 글은 비마이너에도 실렸습니다.

## ‘노들장애학궁리소’는요?

노들장애학궁리소는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공부를 ‘궁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궁리’(窮理)에는 ‘이치를 끝까지 따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를 규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바닥까지, 아니 그 아래까지 따져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궁리’가 ‘장애’를 타자화함으로써 자신을 정립하는 ‘비장애성’(non-disability)—소위 ‘정상성’—의 근거를 파헤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압니다. 장애에 대한 물음은 우리 자신의 규정에 대한 물음이자 그 규정이 깨지는 곳에 대한 물음입니다. ‘궁리’란 거기까지 공부를 밀고 가겠다는 우리의 이론적 다짐입니다.

다음으로, ‘궁리’(窮理)에는 ‘상황을 타개할 실천적 전략’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병들게 하는 온갖 삶의 형식들을 부수어나갈 운동의 지혜와 전략을 ‘궁리’할 생각입니다. 고립, 배제, 방치, 포기, 시혜 등의 부정적이고 예측적인 삶의 형식을 타파하고, 자율적인 공동의 삶을 위한 전략들을 궁리하겠습니다. ‘궁리’란 공부를 투쟁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실천적 다짐입니다.

노들장애학궁리소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던

진 무수한 말들, 때로는 고향으로 때로는 신음으로 때로는 몸짓으로 던졌던 그 말들, 대부분 사회화되지 못한 채 바깥에서만 맴돌다 사라져버린 그 말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말들이 살아나는 그런 장(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말들이 만나는 장, 개념이 생겨나는 장, 새로운 삶의 형식이 구상되는 그런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말하고 쓰는 일, 생각을 옮기고 실천을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장애인운동의 경험 속에서 ‘자율적 삶’을 향한 투쟁이 결국 ‘함께 하는 삶’을 향한 투쟁이었고,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만 ‘자율적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부, 우리의 ‘장애학-하기’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학-하기’를 ‘장애학-함께하기’로 고쳐 부릅니다. 장애학을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장애/비장애의 분할을 넘어선 공동의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변형시키고, 장애를 산출하는 세계를 변혁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그러나 노들장애인야학 교가의 노랫말처럼, 우선은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는 것. 장.애.학.함.께.하.기. 이것이 노들장애학궁리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다짐이고 선언이며 초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요!

노들장애학궁리소 웹사이트 주소 <http://goongree.net>

【노들은 사랑을 먹고】

## 안소진에 대한 탐문 조사

전 야학 상근자,  
고양이 집사, 특수교사

≡≡≡ 최한별

밥보다 맥주를 좋아한다. 와인도 좋아한다. 비마이너 기자로 일한다. 이번 학기엔 야학에서 음악대 수업을 맡아 ‘이매진(Imagine)’을 연습 중이다.



맛있는 안주를 좋아하는 사람, 거대한 두 마리 고양이의 집사, 하이톤의 목소리, 작고 단단한 체구, 명량한 눈. 노들야학에서 공식적으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고, 지금까지도 야학 핵심 인물들과 모종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소진 님.

나는 작년 8월부터 소진 쌤네 얹혀(!) 살고 있다. 두 마리 거대묘들에게 첫날부터 강력한 공격을 당했다. 피는 좀 나고 상처도 광역적으로 남았지만 어쩔지 괜찮았다. 소진 쌤이

특유의 명량한 목소리로 엄뎠뎠어 어떡해요 한별~ 너무 아팠죠? 하는 순간 어쩔지 안 아팠다. 이걸 소진 쌤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라면 열에 여덟은 동의할 텐데, 소진 쌤의 목소리에는 뭔가...사람을 의연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의연하게 고양이의 발톱을 견디게 되고 의연하게 다음날 출근을 잊은 채 오늘날 살만큼 술을 먹게 된다.



소진 쌤은 대학 새내기 때 노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특수교육학과에 진학한 스무살 소진은 약속 없던 어느 주말, 동기가 과 카페에 올린 에바다 투쟁을 알게 되었고 '여기나 함 가볼까...'하고 그걸 또 실행했다(소진 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누가 주말에 늘어져 있다가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서울부터 평택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가... 정말 놀라운 실행력이다). 거기서 소진 쌤은 노들을 알게 됐고, 나중에서야 밝혀진 일이지만, 새내기 소진이 풍문으로만 들었던 '감옥 간 과 선배' 김도현도 노들 교사였다. 여기까지가 1차 인터뷰-를 빙자한 술자리-에서 들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2차를 기약하며 헤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소진 쌤을 인터뷰하기가 어려웠다. 둘 다 외향적인 성격인 탓으로 해두자. 4월의 어느 날, 같은 동네 주민인 가스스 교사 대표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인터뷰는 '시민 케인'형 탐문조사로 노선을 변경해 급물살을 탔다. 이미 다른 사람들과 성북동에서 약속을 잡았던 소진 쌤은 우리가 2차로 간 모 술집에서 이미 4차 째 술을 먹던 모습으로 홀연히 우리 앞에 나타나더니 '인터뷰 좀 해달라'는 내 부탁을 뿌리치고 5차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한별(아래 별)**

소진 쌤은 어떤 사람이었나?

**진수(아래 진)**

2010년에 처음 봤다. 산에 같이 많이 갔다. 등산을 좋아해서 지리산도 가고 덕유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그랬다. 근데 내가 잠깐 쉴 때도 같이 산 가자고 연락 와서 깜짝 놀랐다. 그런 연락을 잘 하는 사람이다. 소진 쌤은 지금이랑 똑같다...

**유미(아래 눈)**

난 산에 다니는 사람들 신기했어.

**별** 이제는 소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없나요?

**진** 술 많이 먹으면 많이 맞았어요... 전 여길(팔뚝 안 쪽을 가리키며) 많이 꼬집혔어요.

**별** 헉 너무 인권침해적인데.

**눈** 좋았던 거 아니야?

**진** (세상 역동적인 표정을 지으며) '악!' 이렇게 아파했죠... (정)우준이도 많이 맞았는데...

**눈** 지금과 다르게 술을 좋아했어요.

**별** 지금도 많이 드시던데...

**눈** 지금은 짬도 안 돼.

**진** 예전에 준호랑 셋이 술을 먹었는데, 준호랑 소진이 엄청 취해서 내가 다 챙겨주고 계산하고 올라갔더니 둘이 날 버리고 도망간 거 있죠. 그날 비가 왔는데, 혼자 남은 나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오바이트 하고... 외로웠습니다.

**눈** 노들 사무국이 명륜동에 있던 시절이었는데, 소진은 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기자였어. 사무국 가면 사람들이 늘 술을 되게 많이 먹는데, 마치 자취방에서 술 먹는 것처럼(후리하게) 먹는 거지. 한번은 내가 수미칩을 사갔대. 너무 비싼 거 사와서 깜짝 놀랐다 이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랑 같이 간 친구 한 명이 겨란말이 해줬는데. 그걸 또 몇 번을 이야기...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안주였다' 이러면서.

**별** 안주를 되게 좋아하셨나봐.

**눈** 응. 그랬고... 뭐랄까, 만나면 항상 술을 많이 먹게 되

는 친구지. 지금은 진짜 먹는 게 아니야. 내가 성북동 이사 왔을 때, 지금으로부터 5-6년 전만 해도 동네에 가게가 없었어요. 편의점 하나, 쪼기 밑에 감자탕집 하나 있던 시절. 그랬다가 '구포국수'(말이 국수집이지 술집이다)가 생겨서 소진이랑 엄청 가고. 사장님이 조용하게 오래 많이 먹는다면 우릴 되게 좋아하셨어. 집도 가깝고 해서 많이 먹었고. 두 시 반에 국수집이 문을 닫으면, 소진이 더 먹어야겠다. 그러면 편의점 가서 맥주 사서 소진 집에 막 올라가서 먹고 그랬지.

**별** 소진 쌤 글은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날 듯... 아쉽다 요즘엔 왜 몸을 사리실까요?

**눈** 아무래도 출근을 일찍 하니가... (소진 쌤은 지금 의정부에 있는 '송민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별** 아이고... 야학에 다시 오면 다시 많이 드실 수 있을까?

**눈** 아니. 이제는 나이 때문에... (일동 숙연)

**별** 야학에서는 어떤 과목 주로 가르치셨어요?

**눔** 청솔1반 국어 많이 했지. 내가 상근 시작했을 그 즈음, 상근을 그만둔대. 그러 구서는 유럽여행을 다녀오고 임용 준비를 했는데, 거의 바로 됐어. 그것도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는...

**별** 녹음되고 있다고 포장하는 거 아닌가요?

**눔** 으하하하하 아닙니다. 우린 그래서 '아 특수교사 한 일 년 준비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동 다시 숙연)

**별** 와, 한다면 하는 그런 분이구나.

**눔** 응 대단한 친구.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았다.  
안소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준호**

내가 음악반 교사였을 때, 안소진이 사무국장이었는데 돈 없다고 키보드 안 사줬다. 그래서 공동 교사였던 임영희랑 나랑 둘이 중고를 사서 나중에 받았다. 그때 진짜 치사했다.

**우준**

소진 누나는 뭐 먹고 싶을 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그거에 답해도 결국 자기가 먹고 싶은걸 먹자고 한다. 교사회의 뒤풀이할 때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서 자기가 주도해서 장소를 잡아. 거부하면 술 먹다가 취하면 엄청 공시렁거림.

그치만 소진 누나가 활동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당시에 수많은 교사들이 찬조금을 엄청 많이 줬다. 나도 내 첫 원고료 전부를 여비로 보태줌. 이런 걸로 봤을 때 소진 누나가 술 마시고 깡판도 많이 부렸지만 사무국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잘 챙겨서 나중에 야학 관둘 때 사람들이 여비로 마음을 표현한 듯하다. 또 야학 교사 관둔 후에도 계속 인연을 맺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잖아. 각종 행사에도 많이 오고. 그런 점에서 매우 드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본다.

술 내음 사람 내음 물씬 풍기는 이 글을 정리하고 있자니 소진 쌤이 들려준 수많은 혜화동-성북동 맛(술)집이 머리를 스쳐간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지. 소진 쌤이 저번에 말했던 그 오뎀바에 쌤이랑 같이 가서 이 글을 읽어줘야겠다.

2017년 3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강남훈, 강문형, 강병완, 강복원, 강성윤, 강수혜, 강영미, 강영미2, 강정자, 강주성, 강현욱, 강희관, 고정신, 고동수, 고명희, 고승현, 고아라, 고재현, 고정화, 고제현, 공선화, 공정옥, 광노근, 광상아, 광성자, 구경민, 구수준, 구승기, 구정서, 구현아, 공경혜, 권경숙, 권기원, 권미경, 권병주, 권순만, 권순성, 권영진, 권용희, 권익재, 권진영, 권태국, 권혁은, 김가경, 김각군, 김건욱, 김건형, 김경은, 김경혜, 김관희, 김근식, 김기우, 김남수, 김대희, 김도현, 김동은, 김동진, 김두경, 김명하, 김명화, 김문호, 김미영, 김미영2, 김미현, 김민, 김민림, 김민아, 김민아2, 김민영, 김민희, 김범식, 김병모, 김보연, 김봉석, 김부연, 김석구,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영2, 김선욱, 김선화, 김선희, 김설민, 김성미, 김성은, 김성영, 김세영, 김소명, 김소희, 김수경, 김수영, 김수한, 김수현, 김수호, 김숙이, 김승혜, 김아람,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욱, 김연희, 김영민, 김영선, 김영승, 김영욱, 김용남, 김용성, 김용우, 김용욱, 김용진, 김용진2, 김우경, 김원숙, 김유미, 김윤경,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은미, 김은희, 김이중, 김인숙, 김재경, 김재양, 김정민, 김정하, 김정현, 김종윤, 김종호, 김준, 김준호, 김준휘,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환, 김진수, 김진우, 김창배, 김태승, 김태연, 김태인, 김판균, 김푸른솔, 김필순, 김한민, 김현영, 김현식, 김현영, 김현지, 김형배, 김혜미, 김혜옥, 김혜진, 김호진, 김홍희, 김희정, 나선영, 나해니, 남대호, 남두형, 남정민, 남지현, 남호진, 노미경, 노상경, 노의현, 노현택, 노혜련, 류명옥,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류향희, 마미주, ㈜머스트자산운용, 맹보명, 문건화, 문경희, 문성원, 문소리, 문지의,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혜, 박계선, 박누리, 박다정, 박명숙, 박민경, 박민영, 박민우, 박보건, 박보라, 박상일, 박서희, 박선은, 박성희, 박세진, 박세호, 박소영, 박시백, 박애경, 박연희, 박영환, 박은미, 박은정, 박은정2, 박장근, 박장근, 박재국, 박정수, 박정원, 박정희, 박종진, 박종철, 박종필, 박지민, 박지영, 박진우, 박찬양, 박태만, 박하순, 박현미, 박현민, 박현희, 박홍석, 배경림, 배덕민, 배승천, 배안나, 배운주, 배진숙, 백수경, 백승혜, 백현희, 백계선, 서동석, 서명순, 서명아, 서미선, 서민영, 서봉경, 서유나, 서은수, 서주형, 석지윤, 선혜란, 성희옥, 손동각, 손성권, 손성한, 손은경, 손은주, 손주영, 손준희, 손혜연, 손환목, 송기호,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우영, 송종호, 송창국, 송현정, 신복순, 신봉준, 신수정, 신수정2, 신수희, 신순영, 신연실, 신영근, 신원정, 신은희, 신임식, 신진, 신현훈, 심미경,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인섭, 심정구, 안경모, 안문필, 안바라, 안병호,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영춘, 안정원, 안정은, 안종녀, 안지혜, 안향미, 안희옥, 양은근, 양유진, 양인순, 양현준, 어수진, 엄재균, 엄주철, 여준민, 오미영, 오민정, 오보람, 오원주, 오정자, 오정희, 오지은, 옥생, 우시우, 원성현, 유남숙, 유문수, 유보배, 유애리, 유창재, 유희준, 윤기범, 윤길중, 윤동구, 윤명섭, 윤미선,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승용, 윤승원, 윤이용,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준서, 윤희, 이강수, 이건학, 이건호, 이경덕, 이경훈, 이경훈2, 이계삼, 이광만, 이광재, 이근희, 이금희, 이금희2, 이동은, 이동진, 이두혁, 이라라, 이리나, 이미리암, 이미영, 이미영2, 이상림, 이상준, 이서윤, 이서준,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성호, 이성희, 이수연, 이수영, 이수정, 이순용, 이승민, 이일찬, 이연옥, 이연주, 이영란, 이영미, 이원진, 이유미, 이유진, 이윤옥, 이윤주, 이은숙, 이은정, 이은정2, 이창우, 이재령, 이재승, 이정실, 이정은, 이재성, 이재현, 이종국, 이종란, 이종실, 이종현, 이주오, 이주욱, 이준길, 이준범, 이지영, 이지은, 이지은2, 이지혜, 이지환, 이진실, 이진영, 이진영2, 이진주, 이철우, 이태근,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진, 이현진2, 이혜정, 이호연, 이호준, 이효정, 이희은, 임덕심, 임동근, 임원택, 임은정, 임자운, 임주현, 임춘희, 임혜숙, 장경주,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영, 장성아, 장옥란, 장원, 장정환, 장지희,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기성, 전대진,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욱, 정규명, 정다운, 정대수, 정대훈, 정명진, 정민구, 정병순, 정상욱, 정선옥, 정성철, 정승이, 정영석, 정영자, 정영호, 정용균, 정용일, 정용훈, 정우준, 정운영, 정유경, 정유진, 정은경, 정익화, 정재훈, 정종권, 정지영, 정지혜, 정진영, 정진이, 정창조, 정택용, 정현강, 정현경, 정현진, 정희덕, 조경애, 조미숙, 조미정, 조성진, 조원일, 조윤경, 조윤실, 조윤정, 조은주, 조은진, 조응현, 조혁진, 조현경, 조혜민, 주상연, 주영은, 주윤춘, 지덕근, 지세진, 지암메디테크, 지혜림, 진영옥, 차순정, 채이배, 천성호, 천영희, 천종민, 최귀선, 최동호, 최미란,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승우, 최은, 최우영, 최운선,



## 후원방법 안내

### 1 후원계좌 안내

- **노들장애인야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문화예술관**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방식과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최은숙, 최은아, 최재희,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찬일, 최하정, 최한별, 최혜영, 하경남, 하금철, 하정자, 한남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엽, 한선희, 한성안, 한송희, 한양재, 한주영,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보영,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정일, 허진태, 허창, 허효재, 홍도순, 홍성미, 홍성호, 홍송대, 홍순희, 홍영선, 홍영희, 홍은진, 홍주영, 홍진표, 홍철기, 황무초(무밍), 황성윤, 황정희, 황진미, 황하연, 황혜전, 황희준

### 계좌이체 후원인

강수혜, 고명선, 공한복, 구자숙, 김명학, 김미선, 김선심, 김용철, 남완승, 류동훈, 박경선, 박현규, 서금석, 손애리, 송영자, 송영자, 신동길, 안성희, 엠알엠글로벌, 오선실, 윤종배, 윤지형, 이수영, 이한진, 이현숙, 이형숙(부개성누가의원), 이효상, 재)아름다운동행, 전준규, 정옥순, 조광배, 착한콜 위드고, 최상희, 티에이치엘, 허병권, 황미향, 황재숙, 후원, 희망열차(김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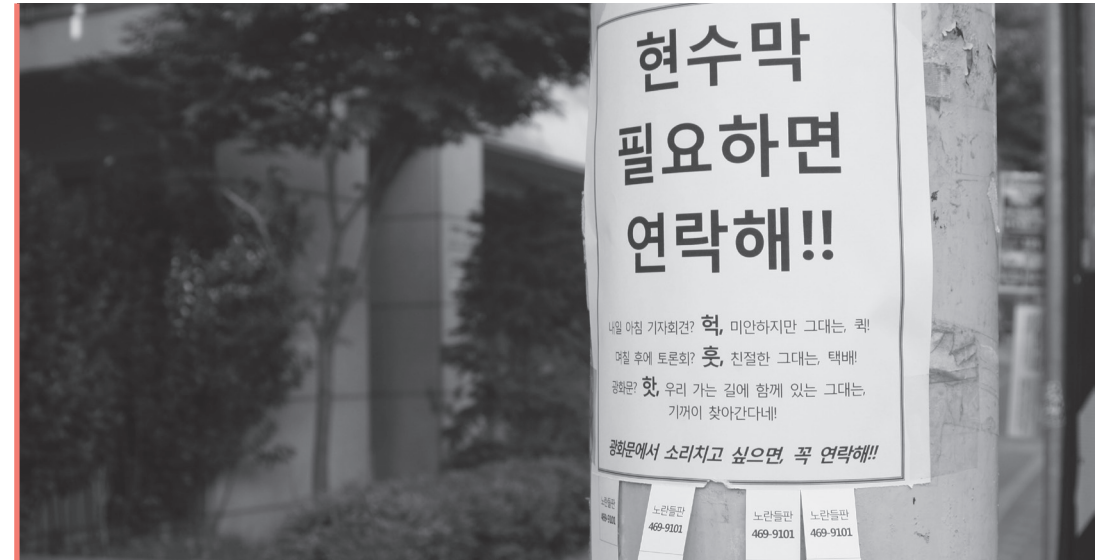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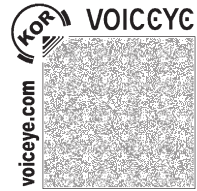
### <노들야학에 온 선물>

- 1월 • **학봉장학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 2월 • **(주)아라바리오** 간편한날(음료) 1500캔  
농맹이 농장 사과 1상자  
구화정 책장과 책 그리고 매트  
류혜인 쌀 여러 포대
- 3월 • **김남옥** 전자피아노  
**아산병원** 사발면 13상자  
**제람** 천혜향 1상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 헉, 미안하지만 그대는 쿵! 며칠 후에 토론회? 훗, 친절한 그대는 택배! 광화문? 핫, 우리 가는 길에 함께 있는 그대는, 광화문에서 소리치고 싶으면 꼭 연락해!!!

### 꿈꾸는 현수막 노란들판

주문·문의 02-469-9101

###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자격(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www.ncil.or.kr](http://www.ncil.or.kr)

이메일 [nodl@hanmail.net](mailto:nodl@hanmail.net) 트위터 @nodlclil  
전화 02)766-9103 / 010-5766-9103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www.420pan.or.kr/](http://www.420pan.or.kr/)

이메일 [centerpan@420pan.or.kr](mailto:centerpan@420pan.or.kr)  
전화 02-6082-6420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전화 02-766-9120 / 팩스 02-6937-1701 / 이메일 [nodeul@gmail.com](mailto:nodeul@gmail.com)